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적 실천 프로젝트 '가치가게'

## 2022 가치가게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가치가게

김해문화도시센터

우리  
함께  
가치가게 해요

가치가게 사업은 김해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가야로부터 이어져 오는 '공존'과 '환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미래가치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문화도시조성예비사업으로 미래하우스(김해한옥체험관)  
↔ 김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동상동)를 잇는 가락로 및 분성로  
일원을 대상으로 1차 가치가게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김해시가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며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부원동 일원을 대상으로  
2차 가치를게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3차 가치게는 김해 전역으로 대상지를 확대 실시하여  
문화적 가치 실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치가게는 2023년에도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도시  
김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rt

Environment

History

Share

Diversity



## 목차



프롤로그 \* 04

### 가치가게 소개

가치가게란	10
가치가게의 5대 가치 & 실천 방안 예시	11
가치가게 추진과정	12
가치가게 지위내용	13

### 3차 가치가게

#### 예술

01 갤러리나무 P &	14
02 늘푸른캘리	16
03 오케북아트 P &	18
04 봉황동 아날로그 종이상점	20
05 예술공간예담 P &	22
06 봉황역숲 P	24



## 다양성

07 가야당주식회사 P & 26

## 역사

08 부산서점	28
09 오랍드리	30
10 카페 봉황1935	32
11 가야탈공방 P	34

## 환경

12 벽돌집	36
13 어우러져	38
14 지윤상점	40
15 카페모미	42
16 래예플라워디자인 P & &	44
17 기후행동카페살리다 &	46
18 안녕, 지구야 상점 & &	48
19 아코커피 & &	50



## 나눔

20 실가인사회적협동조합 & P &	52
21 다올73 &	54
22 합성태권도장 A <sup>a</sup>	56
23 동네커피	58
24 방하림	60
25 아이헤븐 P	62
26 다호정육 P &	64
27 코워킹스페이스PLP	66
28 허니피플 P &	68
29 상록수학원	70
30 수릉원풍경 P	72
31 청향 &	74



## 가치크루

76

## 에필로그

78

### 가게 이용 편의 안내

- A<sup>a</sup> 외국어 안내표기 (외국어 메뉴판 제공)
- & 장애인화장실 (시설 있음 혹은 인근 시설 이용 가능)
- & 텀블러 할인 (텀블러 지참 시 할인 가능)
- & 경사로 (경사로 있음 혹은 문턱 없음)
- P 주차장 (시설 있음 혹은 인근 주차장(무료) 이용 가능)



# 가치 가게란?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도시의 오래된  
미래 가치인 <공존>과 <환대>를  
실천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가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5대 가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치와 그 가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사람과 사람,  
서로의 다양한 문화,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며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술 Art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담은 공간

-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팝업스토어, 작품 전시공간 제공
- 문화 활동을 위한 유휴 공간 공유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예술인 할인제도 도입



## 다양성 Diversity

모두를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공간

-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간 구성
- 외부적 요인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지 않는 공간 운영
- 내·외국인, 시각장애인 등 모두의 편의를 위한 언어 표기
- 채식(비건) 등 개인 취향에 대한 존중



## 역사 History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가치를 담은 공간

- 도시와 개인의 역사를 잇는 한 우물 가게
-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공간
- 지역의 역사와 연관된 특산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공간



## 환경 Environment

과거로부터 전해진 아름다운 환경의  
가치를 담은 공간

- 재활용품 사용 실천 진행 (텀블러 사용 권장 등)
-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및 사용
-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환경미화, 녹지조성 등)



## 나눔 Share

나눔을 통해 행복을 함께 나누는  
가치를 담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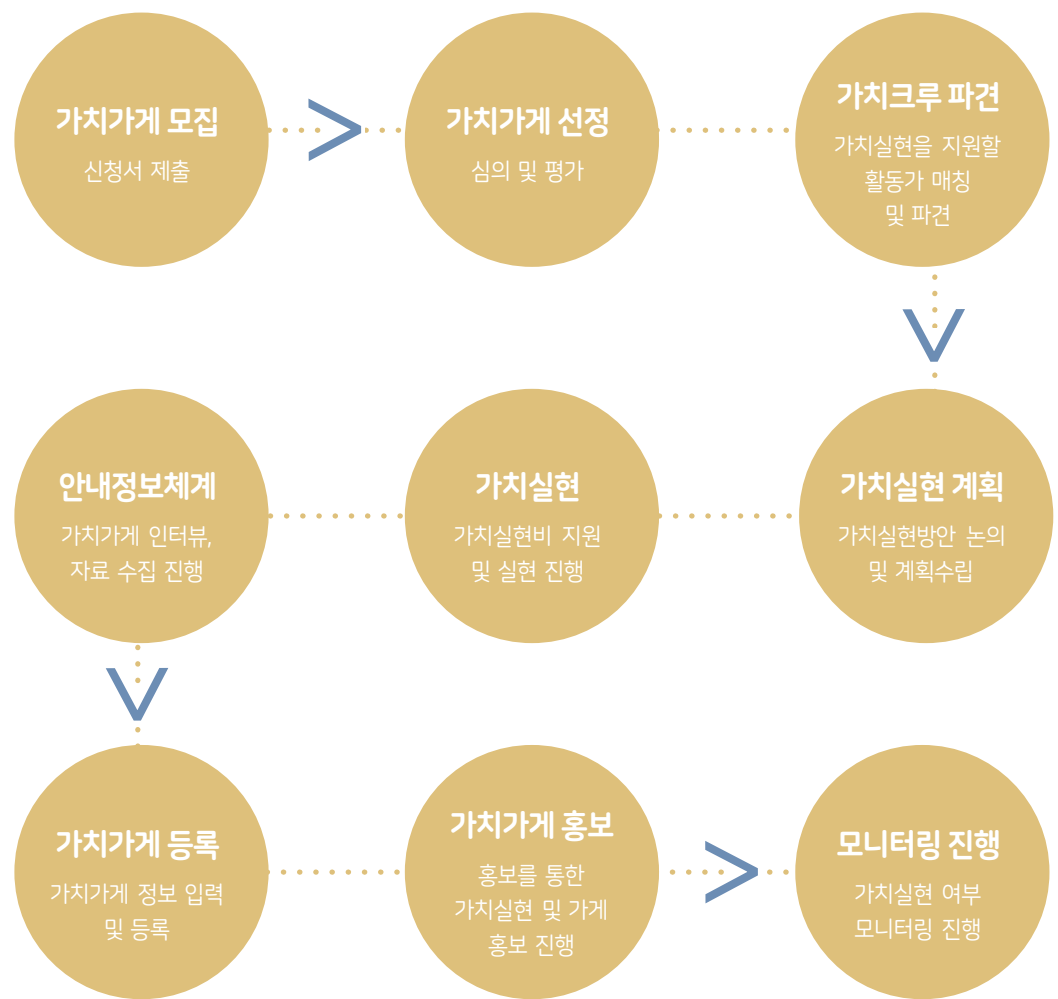
-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진행
- 이웃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무료 책 대여 등
- 첫 손님 가게의 가치 실현

# 가치가게의 5대 가치 & 실천 방안 예시

※ 가치 실천 방안 예시는 하나의 예시일 뿐 가게 및 주인장이 가진  
가치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 가치가게 추진과정



## 가치가게 지원내용

가치가게 선정 및 등록

가치실현 비용 30만원 지원

가치가게별 가치크루



참여 가치가게 인터뷰 및 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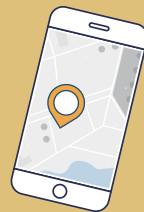


가치가게만의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안내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홍보 진행

# 다들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3차 가치가게를 소개합니다.



## 예술

1. 갤러리나무
2. 늘푸른캘리
3. 오케이북아트
4. 봉황동 아날로그 종이상점
5. 예술공간예담
6. 봉황역숲

## 다양성

7. 가야당주식회사

## 역사

8. 부산서점
9. 오랍드리
10. 카페 봉황1935
11. 가야탈공방

## 환경

12. 벽돌집
13. 어우러져
14. 지운상점
15. 카페모미
16. 래에플라워디자인
17. 기후행동카페살리다
18. 안녕, 지구야 상점
19. 아코커피

## 나눔

20. 실가인사회적협동조합
21. 다울73
22. 합성태권도장
23. 동네커피
24. 방하림
25. 아이헤븐
26. 다호정육
27. 코워킹스페이스PLP
28. 허니피플
29. 상록수학원
30. 수릉원풍경
31. 청향







# 갤러리나무 / 갤러리

주소 경남 김해시 향교길 20 (김해향교 유림회관 1층)  
전화 010-8541-8045



## 모두가 작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갤러리

가게를 들어가자 이번 주 전시인 꽃과 비가 들어간 민화 작품이 보인다. 매주 초등학교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평범한 시민도 화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갤러리나무에서 행복한 화가 이갑임 대표를 만났다.

### 다양한 지역 화가들의 전시 공간

갤러리나무는 김해향교 유림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취정재와 김해향교 등 문화재가 주변에 있어 기와집과 돌담 등 한국적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다. 외국인들이 많은 동상동과 수로왕비릉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갤러리로 접근성이 좋다. 향교 앞의 유림회관에 있어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그림을 그리며 갤러리를 운영하는 행복한 화가

이대표는 창원의 변두리에서 나고 자랐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을 받았고, 미술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아서, 자연스럽게 미대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었다. 집, 골목을 소재로 한 풍경을 주로 그리는데, 골목길의 가로등이 부모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자신을 감싸준다고 한다. 그림 속에 표현된 골목에는 우리의 지난 시간과 기억이 오롯하다. 어릴 때 우리가 뛰어 놀던 골목을 보면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난다. 친구들이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응원과 위로가 있고, 스스로를 허물고 여는 감동이 있다.

“김해에서 27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가끔 힘들기도 하지만, 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그림이 종교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요. 그림은 위로로 줄 뿐, 상처를 주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번은 개인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할 때 제 작품과 마주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죠.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갤러리에선 작업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이대표는 그림을 그리는 작품 활동도 병행한다.

“나는 그림도 그리고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기에 행복한 화가입니다. 좋아하는 화가는 스페인의 비구상화가인 미르입니다. 미르의 작품은 스케일도 크고, 전체적으로 미묘한 바탕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가을에는 전시회가 많아 바쁘다. 인천 아시아 아트페어, 문화의 전당 전시 등에서 개인전을 하고, 평균 50점 정도 그린다. 해마다 작가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아트 페스티벌을 주관하여 어린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해준다. 공모전에 선정된 어린이화가에게는 ‘아트가야 명예회원(김해지역작가)상’과 선물을 준다.

“요즘 아동미술은 창의적인 수업을 하면 좋는데, 그냥 따라 그리기를

갤러리에서는 주로 김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갤러리가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예술 작품을 관람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편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 작가들에게도 공간대여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매주 초등학교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장소가 향교라 어르신들도 많이 오신다. 그 분들이 예쁜 꽃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소녀 같은 표정을 보면 이 대표도 함께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해마다 발달장애인들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작품 전시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자신의 작품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이갑임 대표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갤러리 출입구에 작은 턱이 있어 장애인의 휠체어는 들어오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그 곳의 턱을 제거하여 원활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해서 아쉬워요. 오히려 획일적인 미술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해치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화가들이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서, 김해에 전시관이 좀 더 생기기를 바란다. 개인 갤러리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전시관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치기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김해, 경남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이다. 문화는 산소와 같아서 보이지는 않으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공간이기는 하나 매주 바뀌는 작품들로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월요일에 작품을 교체하고,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 관람이다. 이대표의 최종목표는 건강하게 계속 작품활동을 하고, 본인 작품을 구매한 컬렉터가 만족하는 화가로 평가받는 것이다. 또한 가치기계에 김해에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한다. ☺

글 - 안정자





# 늘푸른캘리 / 공방(캘리그래피)

주소 경남 김해시 관동로 77, 102호 늘푸른캘리  
 전화 0507-1307-3692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eulpureuncalli



##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시각예술

글자일까? 그림일까?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을 가진 심장을 뛰게 하는 멋진 캘리그래피가 가득한 공간 김유진 대표를 만났다.



### “캘리그래피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늘푸른캘리’에서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쉽게 캘리그래피를 배울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늘푸른캘리 김유진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캘리그래피는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시각예술이다. 캘리그래피가 어렵지 않을까? 하고 배우기가 망설여진다면, 이곳을 찾아보자.

늘푸른캘리에서는 캘리그래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배울 수 있다.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는 학문이다. 김 대표는 과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결과가 좋을 때까지 가르치려는 욕심이 많았다. 욕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때마침 취미로 하던 캘리그래피가 마음에 들어왔다. 캘리그래피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됐다. 캘리그래피를 할 때는 마음이 편했다.

어릴 적 김 대표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는 집안 분위기와 반대로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다 하고봐야하는 어른이 되었다. 처음에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배우겠다고 했을 때, 김 대표의 신랑은 단단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를 흔쾌히 도와줬다.

김 대표는 “신랑이 ‘3개월 과정이면 중도 포기 하지 말고 3개월은 무조건 채워라’라고 했을 때도 포기는 안한다고 다짐했었어요. 이렇게 직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죠.”라고 말했다. 그가 캘리그래피 강사로 자리 잡도록 도와준 이는 신랑 뿐만이 아니다. 그는 “우연히 ‘좋아서 하는 카페’를 알게 됐어요. 카페 정인한 대표님이 수업을 하러온 수강생들의 음료 값 이외에는 대관료도 받지 않으셨죠. 정 대표님이 자리예약은 할 수 없으니 미리 와서 큰 테이블을 먼저 편하게 선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주며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자리가 없을 때는 오히려 걱정해주며 김 대표에게 긍정적인 힘을 줬다. 많은 이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수강생도, 강의도 계속 늘었다. ‘좋아서 하는 카페’에서 2년 정도 수업을 하다가 늘푸른캘리의 문을 열게 되었다.

김 대표는 “좋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스스로 반성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저도 좋은 일들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렸는지, 눈가가 촉촉해졌다.

### 표현의 다양한 방법

늘푸른캘리에서는 펜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캘리그래피를 표현하기도 한다.

나무젓가락이나 면봉에 먹물을 묻혀서 글씨를 쓰거나, 칫솔을 사용하면 날카로운 글씨를 쓸 수 있다. 늘푸른캘리에서는 캘리그래피를 쓰는 도구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물감을 이용한 수채화를 캘리그래피를 접목 하거나, 바늘에 종이를 돌돌 말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붙이는 퀴링아트와 접목하면 더욱



다채로운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

텀블러, 부채, 가방처럼 소품에 글씨를 쓰기도 한다. 김 대표는 캘리그래피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는 더 재미난 수업을 위해 다른 여러 공예를 배우러 다니고 있다.

김대표의 휴대폰 사진첩에는 학생들의 작품 활동 사진과 작품 사진이 대부분이다. 그는 작품을 판매하여 듣는 고객들의 반응도 좋지 만, 수업에서 얻는 보람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탈학교 탈가정’이라는 청소년 회복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한아가가 ‘선생님 저는 문제아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예요. 글씨를 쓰면서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 김해에서 문화를 누리다

김해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김해는 시민이 문화예술의 낭고 서로 공유하며, 문화예술을 즐기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문화가 발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다. 문화예술의 선순환이 김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 대표도 김해시가 법정문화도시가 된 후, 김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는 “가치기게사업에서도 선정된 가게들을 많이 활용해 주셔서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문화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취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가 생겼고 직업이 된 것처럼, 모든 분 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 대표는 앞으로 가치기게를 통해서 새로운 공예분야에 대한 수업과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수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글 - 김하울





# 오케이북아트 / 서적 출판

주소 경남 김해시 평전로 213 한일상가 1층 1호  
 전화 0507-1352-2625  
 블로그 <https://www.okbookart.com/>



## 지혜를 담은 북아트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아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 '내가 쓰고 내가 그린 그림이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 생각으로만 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 오케이북아트에서 옥은정 대표를 만났다.

## 놀면서 배우는 책 만들기

오케이북아트는 책을 쓰고 책을 만들어 창작공예활동을 하는 곳이다. 자신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책으로 나온다. 출판물과 북아트, 평면 종이를 입체 형태의 종이를 제작하며 노는 재미를 더한 창작출판공간이다. 옥은정 대표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학교와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다이어리, 팝업북 DIY 제품 등을 파는 온라인 소핑몰을 운영한다. 또한 인쇄 편집 과정, 엽서 제작 디자인, 독립출판 등을 위한 예술문화를 제작 보급하고, 창작북아트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오케이북아트에서 제작하는 책들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면서 움직이는 재미가 있다.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아이들도 즐겁게 책을 접하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다.

옥 대표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학생 한 명당 한 권의 책을 만든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해서 학교와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페그그림책을 새 그림책으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책인형을 만드는 계획이 있다.

“책을 만드는 작업은 백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아한 예술 활동과 전문강사, 작가라는 이름 뒤에는 작두로 종이를 자르고, 손으로 접고, 펴고, 실 꿰고, 붙이고, 뜯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단체주문 키트제작, 택배발송 등 많은 가내수공업의 작업도 있어요.”

기획안 작성, 디자인, 편집, 컨텐츠개발, 창작활동의 문화예술을 하면서, 환경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예쁜 코팅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종이로 대체하여 환경 친화적인 책을 만든다. 다음 전시회는 버려지는 그림동화책을 팝업북으로 재가공해서 소개하기로 했다. 출판물의 종이를 친환경종이인 KC를 인쇄물에도 적용하였고, 강의용 속지를 친환경속지로 대체하여 상품을 제작한다.

옥 대표는 오케이북아트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어 하여, 문화 예술인 카드와 안내 자원봉사자 10% 할인을 적용하여 체험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은둔형 창작 공예 활동가

“저는 은둔형 창작 공예 활동가입니다. 처음에는 종이접기를 배웠고, 북아트를 알게 된 후에는 서울에서 강의를 듣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후 14년 동안 북아트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왔다.

김해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독서교실 강자를 열었다. 옥 대표는 성실하고 열정적이다. 손재주도 좋고, 창의력도 좋아서 상을 많이 받았다. 김해시장상, 경남도지사상, 각종 공예품대전 입상 등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옥 대표는 본인이 행운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이다. 부산, 경남, 마산, 창원, 북아트를 관리하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북아트 분야에서는 경남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내 책은 내가 쓴다.

“북아트와 책이라는 출판물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남에게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아 에세이로 만들어 보세요. 그림이 없다면 포토 에세이로 담아 보세요. 한 권의 책이 시가 되어 나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날개를 단다면 자신만의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누구나 특별한 여행과 인생이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정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책을 출판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싶어요.”  
 옥 대표의 최종목표는 아트북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북아트, 그림책 공방, 공예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소모임 활동을 하고, 다양한 책도 출판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한다. ✨

글 - 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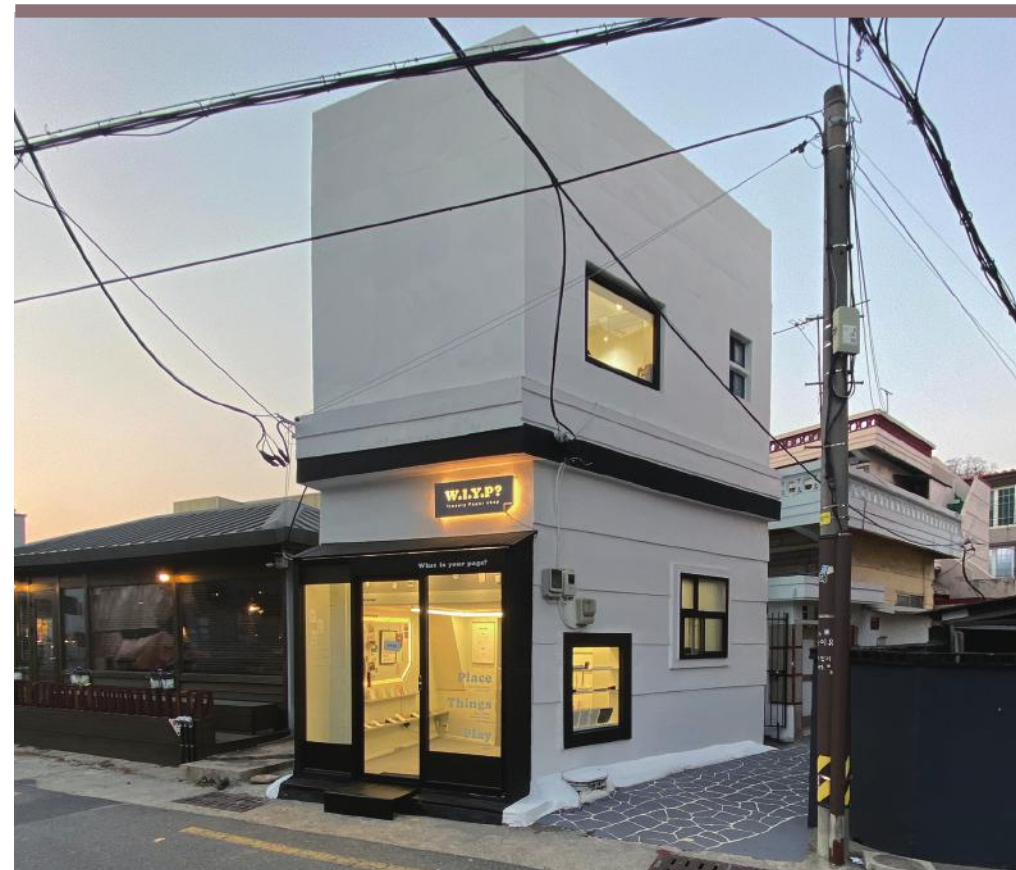




# 봉황동 아날로그 종이상점

(WIYP 종이상점) / 잡화점(종이)

주소 경남 김해시 봉황대길 29-1  
전화 010-9348-1757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w.i.y.p/](http://www.instagram.com/w.i.y.p/)



## “종이가 전하는 아날로그, What Is Your Page?”

봉황동 골목길 사이를 건다보면 작고 하얀 2층 가게, ‘종이상점’을 만날 수 있다. 투명한 유리문을 들여다보면 <봉황동 아날로그 종이상점, W.I.Y.P?>라는 글자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What Is Your Page?(당신의 페이지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어오는 이곳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종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아날로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이 큐레이션을 선보이는 로컬 브랜드이다. 2021년, 김해시 봉황동에 자리 잡은 종이상점의 ‘가치’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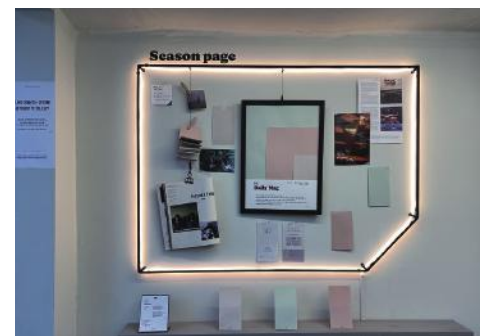
### 종이에 특별함을 더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종이상점의 박영호 대표를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저희 상점 와보셨나요? 설명을 드릴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가게의 특별한 이야기와 이용방법을 들을 수 있다.

1층은 상점으로 운영되며 봉황동의 아날로그를 담은 종이와 시즌별 새로운 특수지 등을 큐레이션하며, 지역 작가들과 협업하여 만들어진 종이 작품들을 전시 및 판매, 종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한 쪽 벽면에는 종이상점에서 운영하는 각종 커뮤니티(모임)의 홍보지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의 안내에 따라 좁다란 2층 계단을 올라가면 포근한 다락방을 만날 수 있다. 2층은 ‘종이와 함께 쉬어가는 곳’으로, 종이를 구매한 사람들이 그곳에 비치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종이를 ‘즐기는 곳’이다. 실제로 곳곳에 이용객들이 남기고간 글과 그림, 일기 등이 부착되어 있고 즐거웠다며 빼곡하게 적힌 방명록이 눈에 띈다. 2층에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종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늘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장점이다.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종이상점의 박 대표는 “여기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요. SNS에서 모집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만난 일반 시민 분들도 많고요. 봉황동의 이야기를 담은, 나만의 아날로그를 가진 작품을 찾아 함께 이야기하고, 종이의 무게부터 재질, 색상 하나하나 고민하며 만들죠.”라며 말했다.

### 종이를 통한 가치실현

이처럼 종이상점은 종이와 작품을 통해 ‘예술’,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가게이다. 봉황동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2021년, 지역 주민들의 예술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종이상점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해 나갈 ‘페이퍼리스트’를 모집했다고 한다. 활동 경력이 전문한 일반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술 기획을 위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개방하거나 필요시 예술 기획에 대한 컨설팅 등 교육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박 대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 봉황동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와 같이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여유가 있는 곳이죠. 그게 종이와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봉황동 근처에 살고 있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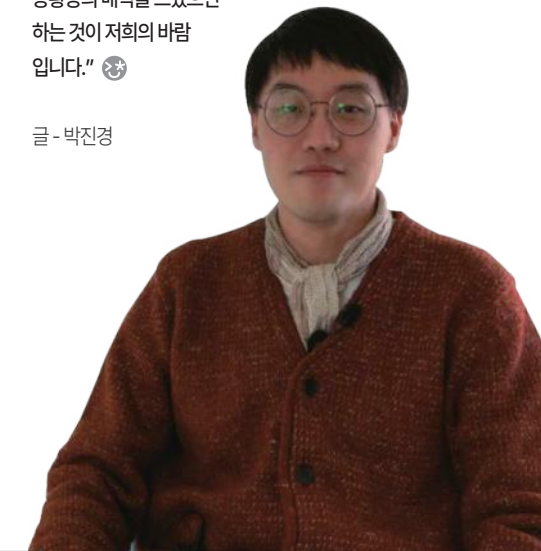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라요. 더 재미나고 예술적인 곳들이 많이 생겨서 이 동네가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된다면 좋겠죠.”라며 말했다.

더불어, 종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곳이다. 상점에서 판매, 전시되는 모든 종이는 친환경적 종이로 제작되며 제품 포장 시 비닐과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친환경 종이만 사용하여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가게이다. 2층을 이용할 때에도 일회용 잔에 담긴 음료는 반입할 수 없으며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봉황동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박 대표에게는 작은 목표가 있다.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들, 역사적 자원들을 종이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설화에 나오는 마타리꽃을 종이로 표현해 낸다면, 봉황동을 종이로 표현하는 노트를 만든다면, 로컬의 자원을 종이로 소개하는 제품들을 꾸준히 만들어 가려 합니다. 지금도 위에 말씀드린 종이를 팔다보면 손님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설명을 듣는 많은 분들이, 봉황동의 매력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글 - 박진경







# 예술공간예담 / 문화공간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 515번길 4  
 전화 055-338-5569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yedarm055



## 가야금으로 따뜻한 예술을 실현하는 공간

동상동 고즈넉한 언덕 위 예술을 실현하는 공간이 있다.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오는 복합 문화공간인 '예담'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민경 대표의 얼굴은 언제나 따스하다.

### 예술을 공유하고 펼치는 마음

"저희 공간은 2020년 4월 13일에 주식회사 예술공간 예담으로 설립을 했어요. 가야금을 중심으로 국악을 전공한 지역의 청년 연주자들과 모듬북, 장구 등 국악기로 협업합니다. 또한 제가 진행하는 한지공예, 매듭공예, 목공예를 체험, 교육, 공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자 관광두레 김해 주민 사업체입니다."

3층 건물의 1층은 공연장으로 전문적인 설치가 잘 구비되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진입이 가능 하도록 넓은 입구에 경사로 설치도 되어 있다. 누구나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듯 이 대표의 배려가 엿보인다. 각 층에는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가야금과 같은 국악기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곳 등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내부는 넓어 어떤 예술 활동이든 거뜰히 해낸다. "전통은 지루하다, 재미없다는 인식을 뒤로 하고 마음을 통하는 체험으로 진정한 전통예술을 알려 나가고 싶습니다."

### 누구나 함께하는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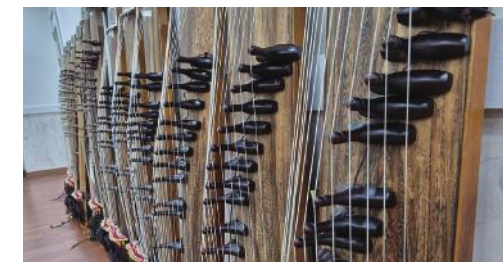
"동상동에서 저희 공간이 위치한 곳은 지대가 높은 쪽에 속합니다. 원도심이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1인 가구 등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문화센터 등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지대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문화생활을 접할 물리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세요."

이 대표는 동네의 지역 주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깝게 누리기를 바란다. 또한 예담에서 진행되는 전통과 관련된 예술 활동을 많은 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가치가게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해는 가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가야 시대의 국악기인 가야금을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생각보다 잘 없던 군요. 그래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끔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까지 걱정했다는 예술 활동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첫해에는 1년 동안 거의 성과가 없을 정도로 노력과 공간 홍보에만 힘을 쏟아부었다. 2년 차가 되자 노력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기 시작했다. 좀 더 체계가 잡히고 열정도 커지면서 현재는 교육, 체험과 공연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 대표의 예술을 사랑하고 알리려는 마음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와 닿은 듯 보인다.

그는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야금과 예술

활동을 향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야금을 전공한 자녀 루다인씨와 함께 8현 가야금을 연구, 개량하여 장애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악기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8현 가야금은 총 20대로 올해 가치가게를 시작하면서 12대를 더 추가로 제작하였다.



"저희 공간은 장애인을 위해 일반적인 12현 가야금을 개량한 8현 가야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장애인과 지역 주민, 예술인이 함께하는 가야금 공연을 했었는데요. 모두에게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관가야 김해의 국악기인 가야금을 기반으로 한 체험, 교육, 공연으로 김해를 알리고자 하는 그는 예술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실천하며 모두들 가야금과 전통예술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 ♻️

글 - 김수진





# 봉황역숲 / 꽃집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54  
 전화 0507-1309-0765  
 블로그 www.bonghwangforest.modoo.at



## 꽃과 함께 마음을 나누세요

꽃은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고 연결한다. 꽃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봉황역숲의 정순경 대표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꽃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

‘봉황역숲은 김해시 전하동에 위치한 예쁘고 싱그러운 꽃을 파는 가게다. 이곳은 김해의 관문인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있어, 김해를 찾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김해의 첫인상이 되는 곳이다. 봉황역숲의 정순경 대표는 꽃의 아름다움을 파는 가게라고 생각하

여 항상 가게의 내외부를 아름답게 꾸미느라 최선을 다한다. 가게 앞에는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울타, 커다란 잎이 매력적인 뽕갈고무 나무, 크로티아, 유칼리투스, 길쭉한 떡갈고무나무, 마삭, 붉은 석류 등이 따스한 햇볕을 받아 예쁜 풍경을 만들고 있다. “김해 경전철 봉황역앞에 자리하고 있는 공간적 위치와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싱그러운, 신선함,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가게 이름을 ‘봉황역숲’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꽃과 식물을 통해 숲이 제공하는 포용과 휴식, 편안함을 찾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 대표는 말한다. 봉황역숲은 공간장식과 실내조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플라워디자인 전문 꽃집이다. 리스, 갈란트, 해피트리, 테라리움, 토피어리 등의 꽃과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꽃다발, 꽃바구니, 조화소품 등 다양한 종류의 꽃과 관련된 상품도 정 대표가 직접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다. 꽃과 나무들이 만들어 내는 색채의 조화와 조형의 균형미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넘어 기쁨과 행복을 준다. 정 대표는 “꽃은 보통 본인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보다 상대방을 위한 선물의 용도로 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각박한 세상에 그래도 남을 생각하는 여유로움을 간직한 분들이 많아서 제 마음도 더러워 따뜻해져요.”라고 말했다. 꽃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소중한 분에게 뜻깊은 선물을 생각할 때, 마음을 전달하는 가고 역할한다.

### 꽃을 통한 마음의 위로

“꽃을 만지면 행복해지고 마음의 힐링이 됩니다. 꽃의 환상적인 색채에 반해서 항상 즐겁게 일하게 되죠. 꽃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꽃집을 통해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정 대표가 가게까지 차리게 된 건, 취미 생활 덕분이었다. 그는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생활 하던 중 꽃이 좋아서 꽃다발을 취미로 만들었는데, 꽃을 만지는 순간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가 제게 한 번 꽃다발을 주문하였는데, 그 친구가 꽃다발을 받더니,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가 꽃집까지 차리게 됐어요.”라며 웃었다. 가게에는 예쁘고 환상적인 색채의 생화가 준비하다. 눈을 자극하고, 향기에 취할 만큼 생화가 장식되어 있다. 정 대표는 꽃을 너무 좋아해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구입하게 된다고 말한다. 가을에는 행사가 많아서 꽃값이 오르고 비싸다. 1년 중에서 손님이 많은 시기는 졸업과 인사이동이 있는 2월, 가족행사가 많은 5월, 크리스마스와 연말행사가 있는 12월이다. 가게 홍보는 남편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도와준다. 실제로 SNS를 보고 오시는 손님이 많다.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 중 중년 남성분이 꽃을 주문하고 찾아 가는 모습을 보면 꽃을 받으실 분이 동화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상상이 되더라고요. 꽃을 사는 자체가 한 편의 동화가 되는 듯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은 군을 제대한 날에 부모님을 위해 꽃을 선물한 군인입니다. 군 생활동안 모은 봉급으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꽃을 선물했어요. 설명하는 대로 원하는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다고 즐거워하던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시다.” 꽃집을 찾는 사람은 여성 손님보다 남성손님이 많다. 꽃을 선물 받은 여성분이 다시 꽃집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정 대표는 그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한다. “보통 남자는 꽃다발, 여자는 꽃 한 송이를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꽃으로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 아름다움과 환경을 향한 가치 추구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은 다시 사람의 정서와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생물학적인 환경이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에도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움이 있는 풍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꽃은 사랑을 전하는 표현이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설레임을 선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꽃이 전할 수 있는 그리움과 사랑과 동화 같은 풍경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정 대표는 꽃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는 꽃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행복해지게 가꾸고 싶어 한다. 그는 꽃을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 사이에 온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 사회와 개개인의 마음을 꽃으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그는 앞으로도 꽃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따뜻하고 정겨운 도시 김해가 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

글 - 안정자





# 가야당주식회사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715번길 15  
전화 전화 055-327-3585  
홈페이지 www.gayadang.com



## 이천년 가야의 역사, 커피에 녹아들다

“내가 사는 지역, 옛날에는 누가 살았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 가야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야사 덕후가 됐어요. 우리가 역사 문화를 쉽게 잊고 사는데, 일상에서 가야의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거죠.” 커피 전문점임에도 ‘가야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였다. 제품 패키지에 들어간 가야의 문양들은 가야사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진하고 향긋한 커피향 만큼이나 잘 드러낸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이천년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바리스타이자 스토리텔러, 장윤정 대표를 만났다.

### 미래를 만들어가는 커피

시작은 10년 전 발달장애인 직원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카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열었던 커피 교실은 점차 비장애인, 봉사자 등으로 수강인원이 많아지며 어느새 그는 카페 매니저에서 학원 강사 자리로 가게 되었다. 그러다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진 학원을 인수한 것이 가야당의 초석이 되었다.



처음에는 교육과 컨설팅 외의 제조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창업을 하게 된 수강생들이 판매할 원두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오며 로스팅까지 도맡게 되었다. “커피를 제조하는 회사들 중 주문 당일 생산이라 표기하는 곳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30kg, 50kg의 대용량 로스터를 가지고 있어 그 날 생산해서 보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5kg, 5kg 이런 소형 로스터를 3대 가지고 있어요. 소량 주문이랑 배송을 바로바로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거죠.” 이러한 세심함과 정성에서 수강생들이 장 대표를 찾아온 이유를 엿볼 수 있다. 그리하며 가야당은 커피 제조와 바리스타 교육, 창업 컨설팅까지 겸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터를 슬로건으로 걸고 있으나, 그는 이 곳에서 멈추고 싶지 않다고 한다. 장애인, 취약계층, 일반 시민을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든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가야당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것이 시각 장애인 근로자, 발달장애 근로자, 비장애인 근로자가 함께 꾸려나가는 ‘다양 상’의 모습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다고 장 대표를 덧붙였다. “10년 전부터 교육했던 장애인 수강생 분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이 분들이 직장이 필요하니까 어머니들이 모여서 회사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전문성이나 리더십이 없으니까, 협동조합을 만드셔도 영업이나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꼭 지켜보다 ‘우리가 그래도 커피 쪽에선 전문가인데 우리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으로 채용하면 끝나는 일 아닌가?’하는 아주 쉬운 생각으로 같이 일하게 된거죠.” 직업을 갖고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그를 돌봐주던 어머니 또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함께의 가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케냐나 에티오피아 등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중 다수는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이다. 때문에 월드비전의 구호 대상에 올라있는 나라가 많은데, 법인 설립을 한 첫

첫 달부터 매출액의 2%를 월드비전을 통해 산지의 어린이들에게 하던 기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고, 듣고, 맛보는 한 잔의 이야기** “지금은 또 제가 가야사 학회 정회원이에요. 제가 교수도 아닌데. 오래된 건 아니고, 시작은 16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김해 바로 알기 역사수업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문화를 잘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같은 곳에 그런 패턴 같은 걸 넣어서 ‘이거 우리 동네 늘 있던 그림이야’라고 이렇게 일상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보자, 어차피 내가 돈을 주고 포장지를 만들 건데 그걸 넣어서 만들자. 이렇게 된거죠.” 그 말에 가야당의 한 칸에 진열되어있는 원두에 시선이 간다. 가야의 파형동기를 패턴화한 소용돌이 치는 모양은 대성동 고분 박물관에서 보던 청동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수로왕과 허황옥을 브랜딩하여 출시된 드립커피 세트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리뉴얼해 나갈 계획이라는 장 대표의 말은 흡사 가야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즐거운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화포천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황새 모양의 로고를, 상동의 백파선 센터에서 카페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조선의 여성 도공 백파선의 도자기를 담은 로고와 패키지를 직접 디자인 하는 등 그 지역과 인물만의 이야기를 담아낸 커피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함을 갖는다. 여기,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싶다는 그의 마음은 커피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현재’로 이어져 내려오는 뿌리로 되돌아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2042년이면 가야 건국 2천년이거든요. 재밌는 게, 가야시대 무덤에서 글라스 잔이나 머그컵 같은 게 다 나와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게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살아오고 있고. 문화나 물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천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이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 그걸 인식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일상에서 역사든 문화든 삶이든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해나가고 싶어요.”

글 - 신은경





# 부산서점 / 서점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길 125번길  
전화 055-336-4314



## 헌책방에 숨겨진 보물

책방 안을 빠르게 채운 헌책들이 진한 책 냄새를 느끼게 한다. 이름 모를 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책이 가득한 부산 서점에서 정영근 대표를 만났다.



### 김해의 유일한 헌책방

부산서점은 김해시 가락로길 125번에 위치한 중고서점이다. 대성동 김해여고 근처에서 약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 유일의 헌책방이다. 백과사전, 소설책, 건강 서적에서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다. 인터넷 로맨스소설, 무협지, 공무원수험서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수험서 등도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 책이 없다. 헌책방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나온 깨끗한 책과 손때 묻은 좋은 책도 많다. 서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은 몇 권인지 세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다. 정영근 대표는 “서점이 작고 좁지만, 50년의 역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작은 헌책방에서 나만의 보물을 찾는 재미는 어디에도 비할바 없다.

50년 전 베트남전쟁에 참전해서 생사를 오가며 받은 봉급을 모아 서점을 시작했다. 그래서 서점은 피, 땀과 눈물로 차린 특별한 가게다.

정 대표는 이전에 학생들이 돈이 부족하여 책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헌책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돈이 없어 참고서를 만지기만 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주기도 했다. “학생들이 책을 사고 돈이 없어서, 제가 차비를 그냥 주었던 기억이 보람됩니다. 또 한번은 군인이 찾아와서 이전에 참고서를 공짜로 준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장교가 되었다며 장교 임관식의 초대장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게가 대성동 김해여고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학생들이 많이 방문했다. 최근에 그 여학생들이 엄마가 되어 자녀와 함께 다시 찾아오면 무척 반갑다고 한다.

### 성실과 절약의 대표 주자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산 증인이다. 그러한 세월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절약하며 살았다. 본인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절약하니 아내도 따라서 절약하게 되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사과상자를 놓고 장사를 하셨어요.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죠. 공부를 많이 못해 오히려 책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50년을 한결같이 매일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설, 추석 명절 당일에만 문을 닫는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사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당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산불예방 업무를 하며 산을 오르내렸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다스려지더라고요. 힘든 순간도 세월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잊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너무 잘 가서 허무할 때가 있는 데,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면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정 대표와 함께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내는 남은 인생을 서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한다.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할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힘든 이웃을 도우며 살 계획이다.

### 책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김해를 꿈꾼다.

부산서점은 김해의 구도심에 위치하여 이전에는 변화가였으며, 장사도 잘 되었다. 지금은 신시가지가 생겨 주위에 사람도 없고 슬럼화가 되었다. 특히 주위에 학생이 줄어들어 손님이 적다고 한다.



“헌책방에 오면 좋은 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요즘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이 골목이 학생들로 붐비고 성업하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면 문제이다. 헌책을 구입하기 위해 타지역까지 나가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좋은 헌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부산서점’이 있어 김해에서도 충분하다.

정 대표는 가치가게에 참여한 이유가 좀 더 발전된 가게가 되고, 김해 시민이 부담없이 책을 읽고 접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많은 관광객과 독자들이 참석하여 이 지역이 발전되고 싼 가격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당당자와 당국에 감사드리며 목표한 가치가게가 성공 될 수 있도록 성원합니다.”

글 - 안정자







# 오랍드리 / 전통차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 291-24  
전화 055-327-9568  
블로그 [www.instagram.com/orabddli\\_cafe](http://www.instagram.com/orabddli_cafe)



## 마시는 차는 건강하게, 머무는 공간은 편안하게

‘오랍드리’는 강원도 방언으로 집주변이라는 뜻으로 동네 마실 오듯 편안하게 와서 정성껏 다린 차를 마시고 마음의 휴식을 얻는 전통 찻집이다.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란다는 조춘제 대표를 만났다.



### 가야의 거리에 전통차의 맛을 더하다.

수로왕릉과 한옥체험관 남쪽 거리에 ‘오랍드리’라는 전통 찻집이 있다. 가게 주변에는 작은 카페가 여럿 있고, 오래된 주택들이 있다. 이곳은 주로 수로왕릉과 한옥 체험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한다.

수로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길을 걷다보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사계절의 변화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가을에는 담장길의 단풍이 매우 멋지다. 또한 한옥체험관의 가와지붕으로부터 한국의 멋이 물씬 풍겨 나오는 거리이다. 오랍드리 입구의 화단에는 오밀조밀한 꽃이 잔뜩 있고, 내부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가게에 들어가면 나무의 향이 나며 산 속에 있는 것과 같이 편안한 느낌이 든다.

오랍드리는 현역에서 은퇴한 조춘제 대표 부부가 인생 2막을 시작하며 차린 전통찻집이다. 인테리어는 남편이 목재를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다. 손수 만든 다양한 조명등이 은은하게 분위기를 밝혀 사랑방 느낌이 난다. 벽에는 김해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전시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오랍드리’는 집주위, 집주변이라는 뜻의 강원도 방언이다. 김해지역에서 사용하는 ‘마실’과 비슷한 뜻이다. “동네 마실 가듯이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차 한 잔하고 담소 나누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고, 커피숍의 흥수 속에서 어른들도 인생을 논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단골 어르신들이 늘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마시는 차는 건강하게, 머무는 공간은 편안하게’라는 생각으로 매일 재료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정성껏 차를 다린다고 한다.

###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한 전통차

오랍드리는 우리 땅에서 재배하는 좋은 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전통차를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

메뉴는 대추차, 생강차, 유자차 등의 전통차와 김해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장군차가 있다. 또한 각종 한방재료를 이용하여 건강까지 고려한 특유의 레시피로 만든 약선차, 생화차, 그리고 향긋한 꽃차도 있다. 전통차를 주문하면 직접 만든 예쁜 다식과 다과도 함께 나온다. 찐한 우정차, 열렬한 사랑차, 고운 사모님차, 마음 고요차, 좋은



차... 차 이름도 재미있다.

“오랍드리의 수제차에는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건강에 좋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합니다.” 라고 조 대표가 말한다. 제대로 된 전통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는 수고로운 작업을 필요로 한다. 재료를 엄선해 다듬고, 말리고, 끓이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다보니 전통차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별로 없다. 게다가 김해의 대표 유적지인 수로왕릉 근처에 전통찻집 하나 없는 것을 아쉬워해서 건강한 전통차를 많은 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

조 대표가 전통차를 시작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전통과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옛날 그릇과 생활용품들을 좋아하고, 토요일마다 유적지를 찾는 역사 탐방도 많이 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찻잔을 포함한 그릇들은 진례에서 분청도자기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김해의 지역 도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 작가님도 알리고 싶어서

분청도자기를 고집합니다. 조금이라도 김해 도예에 도움이 되고자 기회가 될 때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조 대표의 말에서 김해지역의 예술, 농산품, 환경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진다.

### 깨끗한 거리로 만들고 싶어요

조 대표는 역사와 환경분야 가치를 선택했다. 오랍드리는 큰 길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가치가가 생기기 전에는 주위가 지저분했다. 평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쉬운 장소이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바람 따라 가게 앞 공터에 모이기 때문이다.

오랍드리를 시작하면서 조 대표는 환경에 우선 신경을 썼다. 빈 공터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었다. 가을에는 낙엽도 치우고 쓰레기도 정리한다. 지금은 환경이 깨끗해져서 주변 상인들이 고맙다고 칭찬도 하고, 조 대표도 정리된 거리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가치가게로써 지역의 예술, 다양성, 역사, 환경, 나눔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치를 실천한다면 참 멋지겠다는 생각을 했고, 미약하지만 평소 이런 가치 실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동참하는 가치가게가 많아지면 고대 가야의 정신인 환대와 공존이 함께 하는 정다운 김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치실현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이곳 거리를 더 깨끗하게 가꾸고 만들고, 지금은 커피에 밀려 전통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께서 마시던 전통차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해 장군차 홍보에 힘을 보태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 ☺

글 - 안정자





# 카페 봉황1935 / 서점

주소 김해시 봉황대길 27-1  
 전화 055-329-1935  
 블로그 www.instagram.com/bonghwang1935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봉황동, 함께 만들어가요” 봉황 1935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봉황동 봉리단길. 골목 한 가운데 오래된 나무 집 하나가 돋보인다. 카페 봉황1935 건물이다. 1935년에 만들어진 적산가옥을 수리하여 지은 이곳은 봉황1935 허 대표의 고향집이다. 적산가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에게 아픈 추억이 담겨있는 일본식 건축물이지만,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하는 대표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겼다. ‘역사와 나눔’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봉황 1935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짙은 갈색빛 나무 기둥들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 1층과 2층으로 이뤄진 카페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1층에는 인도에서 온 소품들이 눈에 띈다. 다다미(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돗자리)가 깔려있는 방들도 있다. 2층에는 대부분 다다미방이다. 옛 적산가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허 대표는 ‘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봉황대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라고 말한다. 그가 카페 문을 열었던 2017년 봉황동은 ‘신의 거리’라고 불리며, 거리 곳곳에 30-40곳 이상의 점점으로 가득했다.

허 대표는 “당시 봉황동은 카페라고는 한 곳도 없어 낙후된 상권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옛 김해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저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을 살려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새롭고 깨끗한 카페를 지어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 이 가옥을 그대로 복원해 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허 대표의 진두지휘로 여러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도시 재생 활동에 힘을 썼다. 그리고 주민들은 힘을 모으고자, ‘봉황대협동조합’을 구성했다. 현재 허 대표는 봉황대협동조합장을 맡고 있다. ‘봉황대협동조합’은 지역상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김해만 가지고 있는 지역상품과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머리를 맞대, 연구하고 있다. 허 대표는 “봉황대협동조합의 활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봉황동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김해에는 2천 년 전부터 김해시와 인도를 이어준 가락국 허황후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 그 전설을 살려 인도에서 생산한 사탕수수원액인 ‘자그리’를 이용한 메뉴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그리로 메뉴를 개발해, 주변 상인과 나눈다. 상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수정 보완을 걸쳐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내놓을 계획이다. 허 대표는 “얼른 좋은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김해의 재미난 옛 이야기와 함께 왜 자그리를 이용한 메뉴를 만들었는지 들려주고 싶어요.”라며 웃었다.

###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

허 대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봉황동을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청년을 위해 무료로 공간도 나누고 있다. 그는 봉황대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이 회의할 공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 대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언제든지 공간을 내주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때는 음료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봉황1935에서 그런 가치 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낙후됐던 봉황동 거리는 2017년 이후 조금씩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었다.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허 대표는 “봉황동 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과 외부유입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차요”라며 웃었다. 그는 “길거리 곳곳에서 과거와 현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봉황동 이 길입니다.”라며 강조했다.



봉황동에서 정착한지 5년 째. 허 대표는 작지만 귀중한 꿈이 생겼다. 그는 “그저 이 지역에서 오래토록 커피를 내리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살고 싶어요. 가치가게에 참여하며 제가 생각하는 ‘역사’와 ‘나눔’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고, 이 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요”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말을 전했다. “김해 봉황대의 역사가 서려있는 우리 동네는 고층 건물이 없어 맑은 하늘과 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낭만과 여유가 있는 봉황동 이 거리를 찾아주세요.”

글 - 박진경





# 가야탈공방 / 공방(가야탈)

주소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44번길, 52  
 전화 010-3949-2288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gayatal\\_studio/](http://www.instagram.com/gayatal_studio/)



## “김해가락오광대탈의 역사를 이어가는 곳, 가야탈공방”

한적한 산골을 굽이굽이 올라가다보면 만날 수 있는 '가야탈공방'은 김해시 생림면에 위치해있다. 201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대한민국 향토명품장인 인증을 받은 조지현 대표가 탈을 제작하고, 그 기술을 박진우 선생에게 전승하고 있다. 이곳에서 '역사'와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가야탈공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갖가지 열매가 달린 큰 고목과 아이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그네, 하나하나 제작하여 만든 나무 벤치와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다. 가족, 친구 단위로 탈공방을 체험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쉼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공방은 두 관으로 이루어져 한 곳에서 다양한 크기의 탈과 여러 소품이 빼곡히 자리해있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방문객을 위해 음료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1985년부터 탈 제작을 시작한 조 대표는 “탈이라고 하면 보통 안동하회탈을 많이 생각하시죠. 우리 김해지방에도 전통 탈놀이인 '오광대 탈놀이'가 있습니다. '김해가락오광대탈'을 제작하기도 하고,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탈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고 말한다. 탈을 제작하고 기술을 전승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통을 알리기 위해 공방체험을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 공방을 둘러보면, 동전크기의 소형 탈부터 탈 브로치, 열쇠 고리, 노리개, 시계와 어린 아이들을 위한 페이퍼 토이(종이접기 형식의 장난감) 등 모두 공방에서 자체 제작한 소품들로 가득하다.

조 대표는 직접 가구를 제작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며 방문하고 싶은 공간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기술을 전승받은 박 선생은 일반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기 위해 SNS 운영과 시대 흐름에 맞는 소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김해탈이 가진 가치

“우리 김해탈은 상당히 조형미가 있어요. 흉약스럽거나 무서운 느낌이 전혀 없고, 개구지고 재미난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오광대탈의 색 역시, 음양오행사상에 기초를 두어 오방색으로만 이루어져있어요. 황, 청, 백, 흑, 적색으로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공방을 찾아주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해드려요.”라고 대표는 말한다. 탈에 대한 자부심과 전통을 향한 애정이 깊은 조 대표와 박 선생은 공방에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지역의 초등학교 등에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두 사람은 공방을 체험하는 어린 아이들이 김해가락오광대탈의 존재를 알고 갈 때나, 멀리서 체험만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탈이 단지 역사 속 물건이나,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한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말을 전한다. “다른 것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 먹고살기 바빠서 예술, 미술품이라고 하면 대충 넘어가고 관심도 잘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인 김해,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글 - 박진경





# 벽돌집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왕릉길 63



##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김해도서관을 지나 수로왕릉으로 조금 올라가다보면 새하얀 벽들로 지어진 카페 벽돌집이 있다. 환경과 다양성의 가치를 위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김정혜 대표를 만났다.

### 맛과 정성을 철학으로 삼고 있는 벽돌집

이색적인 디자인의 카페 벽돌집은 김해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개조한 편안한 공간이다. 변함없는 맛과 정성을 철학으로 삼고 있는 벽돌집은 수제청이 특별한 카페다. 언제 와도 변함없는 맛을 위해 일정하게 계량해서 커피를 제조하고 있다.



환경의 가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혼자서 참여하기보다 가치가게로 함께하다보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가치가게로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고 작은 것부터 실현할 예정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 중 동남아남자분 세분이 오셨는데 한국말을 하지 못하시니 번역기로 일일이 주문을 위해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메뉴판을 영어로 해야 도움이 되겠다, 영어를 배워 봐야겠다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 환경의 가치 외에도 다양성의 가치에 관심이 갔다.

환경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카페 벽돌집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량을 일일이 해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 보니 손님들이 단골이 되시고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혼자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듯 카페를 운영해와서 잘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었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변함없는 맛으로 정공법으로 묵묵하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가치가게가 같은 가치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게들과 뜻을 맞춰 커피 봉사활동이나 지역 축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벽돌집은 수로왕릉에 있는 왕릉길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도서관과 공원이 있어서 편안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다보니 환경 및 다양성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카페 벽돌집에 오시면 숨겨진 공간 다락방이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뜻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처음과 같이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마음과 같은 맛으로 기억되는 벽돌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

글 - 윤성하







# 어우러져 / 꽃집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23번길 26, 어우러져  
전화 0507-1367-9816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aurzflower/](http://www.instagram.com/aurzflower/)



## 꽃과 식물에 담긴 지구 사랑

봉황동 골목 한 편에 '어우러져'라는 이름의 새하얀 가게가 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큰 창은 이 공간의 주인을 닮아 보드랍고 따스하다. 어우러져는 공간 가득 서혜빈 대표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 서 대표는 "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이 공간에 손님들이 머무는 동안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이 가득하길 바래요"라며 미소 짓는다.

### 당신만을 위한 꽃과 식물

서 대표는 손님이 꽃을 고를 동안, 손님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 손님을 위한 그만의 배려다. 손님이 꽃을 고르면, 서 대표의 손은 자신감 있게 움직인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맛이 다르듯 꽃 한 송이도 그러하다. "저를 믿고, 제가 만족해야만 건네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예쁘고 건강한 꽃다발, 알맞게 잘 심은 화분, 그에 어울리는 식물까지 제 정성과 자신감을 가득 담아 만들어드립니다." 서 대표는 한 송이를 포장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시선과 기분까지 생각한다. 그의 손길에는 마음 깊은 진정성과 멋스러운 감각이 가득하다.

"어우러져는 단순히 꽃만 엮어서 꽃다발을 만들지 않아요. 꽃다발 하나에도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드립니다. 식물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화분에 심어요. 식물과 어울리는 화분을 고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휴 배합도 식물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서 대표는 꽃 시장에서 같은 종만 수백 개가 넘는 식물과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들만 이곳에 데려온다. '어우러져' 내부를 둘러보면 꽃시장에서 골라져 온 식물들이 하나하나 다 비범하다. 어느 식물 하나, 이름 모를 줄기에서 태어난 잎의 각도까지 각자의 매력이 뽐내는 듯 충만하다. 서 대표의 안목과 선택은 결국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오게끔 만드는 원동력이다.

### 우리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삶, 환경의 가치

"저는 살면서 항상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막연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꽃집을 하게 된 이유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은 분과 나누는 일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 대표는 어우러져를 운영하기 전에 교육 관련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나눌 때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현재도 여러 꽃, 식물과 관련된 수업을 운영 중이다. 그의 수업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어우러져'에서 수업이 있는 날 손님이 꽃을 구매하려면 사전 예약은 필수다. 이렇게 사람들과 꽃이라는 식물을 나누며 자연과 가까운 일을 하다 보니 그는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 이는 가치있게 사업의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다.

"어우러져는 꽃, 식물 작업실인 만큼 자연스레 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건강한 식물의 선별부터 화분에 심는 것까지 모두 제 손을 거칩니다. 화분에 식물을 심을 때, 흙을 적게 쓰기 위해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곳이 종종 있어요. 저희는 환경호르몬의 주원인인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아요.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에 감사하며, 식물에게 휴과 돌로 본래의 자연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꽃을 고정할 때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플로랄폼'을 사용한다. 이 플로랄폼은 땅에 묻어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한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플로랄폼을 사용한다. 꽃꽂이를 할 때면 치킨와이어 소재를 사용하는데, 치킨와이어는 철조망의 형태로 칸칸이 구멍이 나누어져 있어 꽃을 고정할 수 있다. 재사용도 가능하며 플로랄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고정재이다.

그는 환경보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소신껏 하고 있다. 기후 위기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의 환경이

무너진 지 오래다. 서 대표는 결국 자연이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꽃과 식물이 주는 가치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의 작은 실천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우러져가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꽃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언젠가는 친환경 부자재 연구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이를 통해 다른 플로리스트 분들과도 환경의 가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새로운 꿈인 친환경 부자재 연구 개발은 환경 가치 실천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적인 발걸음이다.

꽃과 식물을 매만지는 서 대표의 부지런한 손끝에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환경에 대한 가치가 담겨있다. 꽃, 식물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는 '어우러져'가 행복 그리고 위로를 주고받는 공간이기를 희망한다.

글 - 김수진







# 지윤상점 / 잡화점

주소 경남 김해시 율하2로 126번길 6-5 1층 102호  
전화 010-5023-8357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hine\_theearth/



## 환경은 지금 나의 일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타전을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zero waste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하여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

### 지구를 빛낸다

지윤상점은 조금의 노력으로 얼마나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어났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인 2022년 1월에 지윤상점을 시작한 임현주 대표는 “저도 처음부터 환경에 관심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배달 음식을 먹고 난후 쌓여가는 쓰레기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였고 뉴스나 영상을 보다보니 여태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기후위기인 시대에 살고 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각국에서 기후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세대는 피부에 와 닿지 않다고 느끼지만 다음세대는 분명히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임대표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지나치면 안되는데 아직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성인의 한 사람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메뉴얼도



기성세대가 잘 써서 건강한 지구를 물려 주는데 지윤상점이 추구하는 가치예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구를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윤상점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임대표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 숨은 보석을 찾아라

탄소중립 중점학교인 '김해울하유치원'앞에 지윤상점이 위치해 있다. 장유 율하에는 어린자녀를 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 보다는 환경이나 제로웨이스트에대한 인식이 좋다. 아이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장난감, 애매하게 남겨진 현 크레파스, 우유를 먹고난 후 우유팩을 씻어서 가져오는 어린학생 과 학부모가 지윤상점에 방문한다.

지윤상점에서는 ‘왜 자원을 재활용 하어야 하는지, 왜 환경오염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다. 버려지는 커피가루로 화분, 커피연필, 커피멸쇠고리, 캔들 등 ‘업사이클링 커피클레이’라는 환경수업도 하고 있다.

(업사이클 Up-Cycle :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recycle)을 합친 단어로, 더 의미 있고 멋있게 재활용하는



것, 순 우리말은 ‘새활용’이다.) 그 외에도 가정이나 개인이 분리수거를 하여도 선별장으로 갔을 때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뚜껑도 모으고 있다. 빈 용기를 가져오면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를 받아갈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도 운영하고 있다.

(refill station : 다 쓴 용기에 내용물을 다시 채우는 장치나 시설) 임대표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가져오시면 도장을 찍어드려요. 12개의 도장이 모이면 2천원 할인 해 드리고 있어요. 외진곳에 있다보니 아직까지 상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재미난 수업도 진행 하고 있고 자원회수에 참여 해 주시는 분들께 혜택도 드리고 있고 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몸이나 지구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자연에서 만들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천연제품을 판매 하고 있어요.”라며 덧붙였다.

지윤상점의 임대표는 가치가게를 통해 “환경의 가치를 더 많은 지역민들과 실천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

글 - 김하울





# 카페묘미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흥동로 65번길 8-8, 1층  
전화 070-8691-2383



## 고양이 묘, 아름다울 미

간판부터 가게 근처 벽화까지 귀여운 고양이들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 곳이 있다.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하는 카페로 사람과의 공존을 꿈꾸고 있다는 카페묘미 대표 최혜영 대표를 만났다.

### 카페 내에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묘미

흥동 1통 마을회관 맞은 편에 위치한 카페묘미는 다양성, 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다양성의 가치로는 카페 내에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고, 환경의 가치로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으로 텀블러 할인을 하고 있으며, 빨대도 생분해되는 옥수수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묘미 옆 골목 벽화를 그려 흥동 벽화골목으로 산책하기 좋은 길을 만들었고, 주기적으로 동네 쓰레기줍기를 하고 있다. 나눔의 가치로는 가게 앞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의 먹이를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묘미라는 가게 이름이 고양이 묘, 아름다울 미 라는 한자를 쓴다. 이름처럼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하는 카페로 사람과의 공존을 꿈꾸고 있다. 동네책방으로 독립 서적 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소량의 책이 입고되어있다.

2층 공간은 대관과 함께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관은 1시간 1만원 예약제 운영으로 수업은 미리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개국해서 동네고양이 관련 이야기나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

카페묘미 최혜영 대표는 김해문화재단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가게를 소개하고 있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묘미도 가치를 실현하는 가게로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에 대해 최 대표는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와서 길고양이를 보고 도란도란 얘기나누는 모습이 흐뭇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최 대표는 “아이에게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네요.”라고 했다. 유모차에 태운 아가와 함께 산책 나온 어머니는 고양이 벽화 골목을 거닐며 볼 거리가 많고 정말 예쁘다고 아이스바닐라라떼를 사갔다.

또한 기억에 남는 손님은 거의 매일 텀블러를 들고 오는 총각이다. 어떤 날은 매우 늦다가 어떤 날은 빨리 오기도 해서 말을 걸었다, 최 대표가 “오늘은 늦었네요. 동네 사시나요?”라고 물었더니, 총각은 활짝 웃으면서 동네에 살아요”라고 말했다. 묘미 1호 팬이 된 텀블러 총각. 오늘도 응원을 보내게 된다.

최 대표는 “가게를 하지 않았으면 거의 혼자 지내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묘미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어르신들, 동네강아지, 동네고양이 의 삶을 가까이 엿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함께 살아가는 동네 사람으로서 동네 어르신들이 커피 찌꺼기를 달라고 하시면 나눠드리고, 골목에 벽화를 그렸더니 그려진 연꽃을 보시면서 무척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지역은 임호산 자락 밑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 흥동이다. 흥동은 옛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소규모 빌라와 아파트도 공존한다. 최 대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간혹 젊은 부부들이 살지만 교육 등의 이유로 잠시 거쳐가는 동네일 수도 있어요. 흥동 맛집, 카페 거리가 형성되어 있지만 주변에 볼거리가 적어서 잠깐 스쳐가는 동네이기도 합니다.”라고 흥동에 대해 소개했다. 잠깐 스쳐가도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흥동 가치가게 카페 묘미에 들린다면 다양한 가치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가치가게를 통해 카페 묘미는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책과 문화, 사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

글 - 윤성하







# 래예플라워디자인 / 꽃집

주소 경남 김해시 율하카페길 81-18, 1층  
전화 0507-1481-2582  
블로그 [blog.naver.com/leyeflower](http://blog.naver.com/leyeflower)



## 함께 하실 래예?

래예플라워는 환경과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꽃집이다.  
쓰레기 없이도 예쁜 꽃을 만들고 김해 지역 예술가들을 지지하는 멋진  
가게를 운영하는 박하늘 대표를 만났다.

## 만져도 됩니다 꽃집

래예플라워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일 할수 있고 아무도 나를 자를 수 없는 직장(가게)를 스스로 만들고 싶어 2019년 문을 열었다. 래예 플라워의 입구를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냥 화병에 담겨있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다.

주로 우리가 봐왔던 꽃집에는 꽃 냉장고에 꽃이 있어 실제로 만져 보거나 향을 맡아 보기엔 꽃이 상할거 같아 눈치를 봐왔다. 하지만 래예만의 특별한 공간에서는 당당하게 적혀있는 문구만져도 됩니다만져보세요!!  
특히 예스 키즈, 애견동반이다.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들 '안돼! 만지지마!'라고 말하시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꽃이 생각보다 강해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해요. 저희가 어린이들이 와서 조금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린이들 항상 환영합니다,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계신 분들도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가게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플로리스트들이 골라주는 '알아서 예쁘게 꽃다발'을 주문 할 수도 있다. 가게 벽에는 '나도 플로리스트'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누구나 쉽게 꽃을 만져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골라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메시지 카드에 마음을 적어 꽃과 함께 선물을 할 수도 있다.



## 환경의 가치를 같이 실천하실 래예?

"사실 꽃은 예쁘지만 포장에 과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꽃의 아름다움만으로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예쁜 꽃다발을 만들면서 쓰레기를 동시에 생각해야하는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화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구매하시는 꽃의 10%를 할인해드리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포장지를 사용한 포장은 해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화병에 알맞은 크기로 꽃을 꽂아 가실 수 있어서 좋고 불필요한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요. 많은 고객님들이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화병을 들고 오는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래예플라워에는 대나무, 짚, 과인 껍질, 해조류, 돌가루, 초식동물의 배설물 등을 활용해서 만든 비목재 종이로 만든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 포장 요청시 '에코포장'으로 선택 가능하다. (에코 eco)  
박대표는 "색상도 다양하고 질감도 재미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꽃다발 못지않게 특별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어요"라며 추천하였다.



## 우리동네에 래예가 있어서 참 좋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래예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  
"꽃집이라는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어요'라는 걸 알려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주변에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서 콘서트든가 그림을 상품으로 제작하여 나눠드리는 마켓을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네사람들에게 '래예가 우리동네에 있어서 참 좋아요'라는 말을 듣는 게 꿈이에요. 가치가게를 통해서 래예플라워가 앞으로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 예술공간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요." 🌻

글 - 김하을







# 기후행동카페살리다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대성동 488-20 1층  
전화 0507-1329-6499



## 조금은 불편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플라스틱, 텀블러 우대, 업사이클링, 비건클래스,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한 고민과 교육을 진행하는 곳, 기후행동카페살리다의 남아름 대표를 만났다.

### 살리다가 추구하는 가치

살리다 카페는 노플라스틱, 텀블러 우대 카페다. 업사이클링, 비건 클래스, 제로웨이스트샵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환경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

살리다 카페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만들어진 가게입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편하게 쉬어가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텀블러 지참시 모든 메뉴 천원 할인이 되고, 텀블러 대여도 가능하며 텀블러 세척대가 구비되어 있어서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더욱 알찬 이용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하며 아이들과 어르신 분들께서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다. 한편에는 환경 관련 책들과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조용하고 알찬 공간이다. 또한 지역문화센터나 외부 수강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비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비건이란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적극적인 개념의 채식 주의자를 의미한다. 비건 쿠키, 빵 만들기 클래스 운영하고 있어서 비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가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비건에 대해 알고 흥미를 느끼면서 비건 빵을 직접 만들어 가져가면 정말 즐거워한다.

가치가기에 참여한 만큼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김해 5대 가치 중에는 환경의 가치가 가장 관심이 많다. 우리 가게가 나아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고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참여하고 싶어 가치가기에 함께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생명교육, 환경교육을 오래 해왔다. 이전에는 환경운동이나 교육을 하면 일부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기후행동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게의 목표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불편하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다.

### 편안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공간

기후행동 카페 살리다가 있는 대성동 동네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그래서 기후행동카페가 무엇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많은 손님들이 우리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물어보고 들어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보람되고 더욱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 가게 바로 옆에 대성동 백운공원이 있다. 놀이터에서 계단을 꼭 올라가면 김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백운대이다. 김해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곳에서는 앞쪽으로는 김해시가 한눈에 보이고 뒤쪽으로는 천문대와 분선산이 보여 한적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다. 앞으로 지역의 다른 카페들과 연동해서 공유 텀블러를 확장하고 다른 카페에서도 텀블러를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텀블러를 회수하는 업체가 생겨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역에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사이클링이나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만들어 판매로 이어지고, 지역의 예술가, 소상공인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고 싶다. 소상공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서로 힘이 되고, 즐거운 모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강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

글 - 윤성하





# 안녕, 지구야 상점 / 잡화점

주소 경남 김해시 대청로 26번길 17-1, 102호  
전화 0507-1375-6145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i\\_earth\\_store/](http://www.instagram.com/hi_earth_store/)



## 불편할 준비가 되었나요?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느리고 불편하게 지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해지는 공간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하여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가게 이곳은 2021년 9월 문을 열었다.

### 불편한 실천의 시작

자원을 재활용 하고 대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가도 해를 끼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은 사장  
손님이 만날 수 있는 "쉽게 말해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면 내가 해야겠다고 결심  
했습니다. 카페 갈 때 텀블러 챙기기, 짧은 거리는 걸어다니기, 겨울  
엔 난방온도 낮추기, 쓰지 않는 전기 콘센트 뽑기 알고 있지만 당장  
편하게 지나기 버렸던 과거를 버리고 조금만 불편해지기로 했다.  
"이런 마음은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금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몇 년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주변 사람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싶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나 혼자서 하는 것 보단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관심은 있지만 활동공간이  
없어서 실천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가게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최선미 사장은 말했다.

"과도한 실천은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내가 실천해나갈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해 보아요. 실천한다는 것은 삶의 전반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오래도록 이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최사장이 손님들에게 자주하는 이야기이다.

### 특별한 마음을 간직한 곳

이곳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다.

내가 환경을 생각하고 불편하지만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가게입구 '용기내  
주세요'라는 중의적인 뜻이 적혀있다. 사용한 용기 (물체를 담은 그  
릇)을 들고 와서 세제를 소분해서 가는 사람들 환경을 위해 한걸음  
불편해질 용기(씩씩하고 굳센 기운)를 가진 사람들 가게를 들어서자  
분리수거함과 소분해서 무게로 판매하는 식품들, 친환경 수세미,  
고체 비건 치약, 약산성비누 등이 보인다.

한켠에 보이는 나눔 공간 "나는 쓰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쓰임을 다할  
물건을 나눔 합니다." 공간마다 환경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게  
이다.

안녕지구야 에서는 물건을 사갈 때 재사용한 소핑백을 사용하는  
가게이다. 정말 특별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상점, 상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환경보호에 관심은 많지만 정보가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 나  
혼자 바뀐다고 크게 변화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

글 - 김하울





# 아코커피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우암로29(외동1187-20) 뜨란채A 정문 맞은편  
전화 010-9351-8955



## 한 잔 여유, 그 이상의 가치

1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통나무 산장 같은 외관은 정다움이 느껴진다.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면 우드톤의 아끼지 않은 내부에는 로스팅 기계를 비롯해 콜드 드립타워, 드립백까지 김순에 대표의 커피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눈에 선히 보인다. 내려내는 한잔의 커피에는 그 온기보다 더 뜨거운 나눔의 마음이 녹아 들어있다. 차 한잔 그 이상의 가치를 내려내는 '아코커피'를 찾아해보았다.

### 사소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가치

내외동의 아파트 단지 앞, 나무를 사용해 목가적인 느낌을 주는 카페가 자리잡고 있다. 12년 3월에 문을 연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긋한 커피 향은 끊이지 않는다. 아코커피라는 귀여운 이름은 김 대표의 아들의 태명인 아기 코끼리의 준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먹거리가 저희 아들이나 가족이 먹고 하는건데, 혹시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유혹에 흔들리게 되더라도 이름을 이렇게 정해두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 아코커피가 내건 슬로건은 '다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자'이다. 그에 걸맞게 김 대표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가게에 그 날 처음 방문한 손님의 결제금액을 그 손님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첫손님 가게' 1호점이라는 타이틀에, 한 달에 한번 지역아동센터에 우유와 빵과 같은 간식을 지원하기도 한다. 가게 한 칸에 놓인 수제로 뜬 수세미들도 아코커피가 실천하는 나눔의 일종이었다.

“뜻 있는 엄마들과 같이 수세미를 따서 독거 어르신들께 후원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직접 찾아 뵙고 안부도 묻고 생필품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택배로 보내드린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7명에서 시작해서 이름이 '칠뜨기'예요. 어감을 일부러 웃기게 지으면 기억에 남으니까요. 저는 그 중 다섯 번째라 오뜨기예요.”

한 가지도 실천하기 어려운 나눔활동을 여럿 하면서도 김 대표는 생색내는 기색 없이 말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톡 하고 던질 수 있는게 나눔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눔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걸 표출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우리 애들만큼은 엄마가 하는 걸 보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랐어요.”

아코커피를 기준으로 파생되는 나눔들을 보는 것이 뿌듯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도미노처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던 김 대표가 가치가게의 플랜카드를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 아닌 필연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가치가게에 참여하며 아코커피가 추구한 가치는 나눔 뿐 아니라 환경 또한 있었다.

“카페를 하니깐 테이크아웃 쓰레기가 엄청 나거든요. 팔면서도 죄 짓는 느낌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전분 빨때도 써봤는데 너무

파손이 잘 돼서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텀블러 할인이예요. 오실 때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천원을 할인해드려요. 할인폭이 크니까 기억에 남아서 저희 집 찾아주실 때는 그걸 생각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 이어지고 퍼지는 선의라는 마음

아코커피를 찾는 이들 중에는 유대표의 신념과 뜻을 함께 하는 이들도 많았다. 유 대표와 함께 공부하는 이들도 그의 행보를 보고 나눔을 결심하게 되었고, 생명 나눔 재단에서 독거 어르신들의 명단을 받아 함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달에 한 번 반찬 봉사를 1년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자신으로 인해 나눔과 배려의 씨앗이 싹 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기뻛다고 김 대표는 말한다.

“최근에 저희가 행복한 커피라고 아코만의 기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배달로 주문하시면 캔커피를 천원에 드리는데, 이 수익금은 전액 가정폭력 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있어요. 배달 어플로 주문하면 사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적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하루는 '커피는 먹지 않는데 너무 좋은 취지여서 그냥 주문합니다'라고 써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뿌듯했어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같아서요.” 자연스럽게 나눔이 스며들기를 바란다는 김 대표의 마음이 가게를 찾아주는 이들에게도 전달된 것이 느껴졌다. 아동센터 간식 지원도 처음에는 홀로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육아맘 카페와 함께 진행하며 4, 5년 이상 함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활동들 끝에 김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미혼모 쉼터를 짓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엄마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념이 이어져 커피로 미혼모를 교육 및 자립을 시키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꿈을 꾸고 있었다. 뜻이 맞는 친구들도 교육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을 쓰는 사람

근처에는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이런 가게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나눔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허들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고, 아코커피로 인해 연결이 돼서 점점 영향력이 퍼져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꾸준히 마음을 나누고 노력하는 이들이 김해에 있기에, 언젠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다가오리라 믿는다. ☺

글 - 신은경







# 실가인사회적협동조합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삼문로 62, 1층  
전화 010-6449-0206



## 동행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

도로변을 따라 길을 걷다보면 '무료 나눔'이라는 문구 뒤로 커피라면, 쌀, 빵 등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나눔터를 운영하는 실가인협동조합의 김진환 대표를 만났다.

### 존중의 작은 실천

실가인사회적협동조합의 김진환 대표는 "동행은 동행이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의 동행은 함께 가는 것, 뒤의 동행은 함께 행복하는 것 이라는 뜻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라고 말했다.

실가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의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15명의 발달장애인들과 8명의 직원으로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원하는 수업을 월별계획표에 적을 수 있다. 농구, 영화, 전시회관람, 배드민턴등 하고 싶은 수업을 같은 그룹 사람들과 의논하여 수업을 정한다. 미술 수업에서 특출난 실력을 뽐내어 3명의 작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은 드립커피가 담겨져 있는 드립백피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분들과 동네산책을 다닐 때도 종량제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닌다. 인식 개선을 위한 행동은 발달장애인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성인인 발달장애인분을 가볍게 부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존중하기 위해 '~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30세 이상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님'이라고 부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님'이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실가인 내부에서는 서로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나눔에 참여하는 쉬운방법

실가인사회적협동조합의 입구 옆에는 '동행무료나눔터, 무료나눔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하안부스가 있다. 부스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자렌지와 전기포트, 냉장고가 보인다. 선반위에는 라면과 빵이 차곡차곡 정리되어있고, 냉장고에는 물이 준비되어있다. 동행나눔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 간단히 식사를 해야 하는 택시운전사나 출출한 학생들, 목이 마른 사람 등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7시까지 열려있다. 나눔터에 있는 음식은 발달장애인의 작품으로 제작한 상품의 수익금과 지원받은 물품으로 운영된다.

나눔터에 있는 음식은 발달장애인의 작품으로 제작한 상품의 수익금과 지원받은 물품으로 운영된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식을 지원 해주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원하는 수업을 월별계획표에 적을 수 있다. 농구, 영화, 전시회관람, 배드민턴등 하고 싶은 수업을 같은 그룹 사람들과 의논하여 수업을 정한다. 미술 수업에서 특출난 실력을 뽐내어 3명의 작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은 드립커피가 담겨져 있는 드립백피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동행나눔터는 2021년 2월부터 운영을 하였다. "가치가계를 통해 작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나눔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동행나눔터'는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실가인협동조합의 나눔의 온기를 느낀 지역주민들이 동행 나눔터에 방문을 한다. 명절에 들어온 선물세트중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가져다 주시거나 코로나가 심할 때 마스크 기부를 하시고, 김치를 직접담가 놓고 가는 등의 자발적인 나눔에 지역주민들이 동참하였다.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실가인협동조합의 '동행나눔터'를 방문하면 된다.

### 편견없는 우리 이웃

위험한 차도를 뛰다니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불쑥 인사를 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은 개개인마다 다른 특수성을 보인다. 그래서 김진환 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을 제대로 돌보기위해서 특수교육학위를 취득하였다. 김대표 본인을 위한 것보다는 타인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에서 선량한 마음이 보인다.

"신학을 하였을 때, 교회 모임을 하다 보니 성도들의 아이들도 돌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김해여자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맡아서 학생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제안을 계속 받게되어 방과후 교실을 하였는데 그때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갈 곳이 없어서 실가인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김대표의 아들도 발달장애인이다. 이렇게 김대표는 발달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출전한 미술대회가 있다. 그림만 놓고 본다면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런눈으로 장애인들을 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한다. ☆

글 - 김하울







# 다올73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삼계로 33(푸르지오 아파트상가동 110호)



## 모두가 어우러지는 강을 위한 마중물

73년생 친구들이 모여 만든 아지트같은 공간이라는 '다올73'. 모두가 오시라는 재치있는 이름에서 엿보이듯, 김정숙 대표는 이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선뜻 무얼 하는 것인지 짐작하기 힘든 가게는 어떤 매력과 이야기를 품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올73을 찾아가 확인해보았다.

###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

다올73은 처음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친구, 사주를 공부한 친구와 함께 꾸려나갔다. 그러다 친구들이 가게를 그만두고 김 대표 홀로 운영하게 되자 현재 타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는 타로카페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가게의 상황이 바뀌면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쓰임을 공간에 주고싶었다고 김 대표는 말한다.

“저는 이 공간을 대여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매주 화요일 첫째 주 둘째 주 건강 독서 모임, 마을 풀꽃 모임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책 읽고 토론하는 철학수업을 하거든요. 저 혼자 쓰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타로는 예약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누구나 오셔서 여기에서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과외를 받을 때에도 카페에서 수업을 들으니 음료를 사서 마시는 게 꽤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과외나 수업을 진행하는 곳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세 같은 최소한의 사용료만 지불하고도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것마저 지불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그저 깨끗하게 사용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 되고 싶다고.

“엇그제도 저희 아파트에 사는 주민분들이 벤치에서 와인처럼 음식을 나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희 가게에서 마시라고, 매주 자기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느낌으로 식당 같은 곳을 가는 것보다 각자 집에서 음식 하나씩, 와인이나 과일같은 거 가져와서 모임 가지면 좋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밖에서는 (모임을 가지지를) 못하고 여름에는 모기도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그냥 저녁에 가볍게 마시고 문만 잘 잠깐 주시고 가면. 그렇게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 새로움을 찾는 김 대표에게 '가치가게'는 또 다른 길의 시작이었다. 다올73에서 철학 수업을 하는 지인의 제안으로 접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이 선뜻 가진 것을 나누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반가움과 기쁨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는 일이었다.

그는 비단 공간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꾸리길 바랐다. 음식점 같은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김 대표나 지인들, 이 공간에 와주시는 분들에게 아이디어나 의견을 얻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3자의 시선에서 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기 마련이니 말이다.

### 나눔이 돌아오는 순간

가게의 한 구석에는 소품이나 옷가지들이 소소하게 놓여있다. 김 대표가 과거 판매했던 물건들이나, 소규모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지금은 세일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다올73의 새로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따라왔다.

“안 그래도 아는 동생이 직접 만든 물건 같은 걸 판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빌려줄테니 여기서 촬영도 하고 배치나 판매도 하는 게 어떨까고 제안했어요. 그 수익의 일부는 조금 기부도 하고요. 주변에 저희가 안 입는 옷들을 교환하거나 무료로 나눔하고 판매하는 것도 좋고요. 샵인샵 개념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긴 즐거운 만남도 있었다. “저번에는 무료로 나눔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알고보니 찾아오신 분이 고등학교 동기였어요. 이렇게 올리면 가끔 하나씩 가져가 달라고 해도 어떤 분은 몇 개씩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옷을 가져가는 대가로 자기도 치약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가 잘 지내구나 하는 반가움도 있었고요.” 건넌 마음에 화답하듯 돌아오는 마음을 알아채는 것. 그런 세심함이 김 대표로 하여금 지속해서 주변에 함께 나누고픈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았다.

“타로 상담은 보통 고민이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타로를 보시고 그 고민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해주시면 그게 참 보람 같아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를 올리거든요. 나중에 그 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건강이 호전되었다거나, 합격했다거나 그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면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들이 전해지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을 담은 공감은 그 형태는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마음이었다.

“제가 타로를 한 4년 정도 공부했어요. 타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이냐, 아니면 배우셨는데 가게를 창업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배우고 또 다른 분들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타로 보는 스타일을 보고 배울수도 있고, 가르쳐주고. 그냥 그런 공간이면 제일 좋겠어요.” ☺

글 - 신은경





# 합성태권도장 / 학원(태권도) 주소 경남 김해시 서상동 42-7번지 1층



## 서상동의 안전 지킴이, 합성태권도장

서상동 합성초등학교 앞 골목길을 걷다보면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합성태권도장'을 만날 수 있다. 2004년 이 곳에 자리 잡은 합성태권도장은 이 동네 아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 가보았을, '아지트'같은 공간이다. 19년째 도장을 운영하며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정은수 대표를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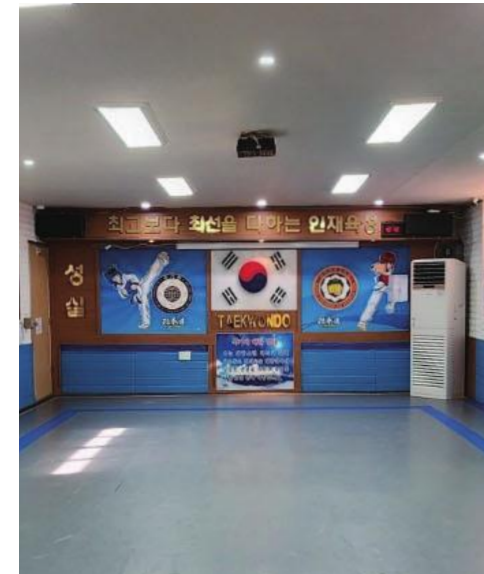
### 배려로 이어지는 문화교류

"안녕하십니까, 합성태권도장입니다." 시끌벅적,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멋진 기합 너머 정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활짝 열린 대문의 양 옆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태권도 안내문이 보인다.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영어 등 총 7가지 언어로 적혀 있는 이 안내문들은

정 대표가 가치기개와 협업하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붙인 것이다. 정은수 대표는 "우리는 지역 특성상 수업의 30% 정도는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통역해주며 서로 도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때문에 외국어 안내문을 붙여두면 다른 아이들도 어려움 없이 이 태권도장에 올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합성태권도장에는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쭈뼛거리며 수업에 들어오던 다문화 학생들이, 이내 수업에 적응하고 언어와 문화교류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는 정 대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학부모에게도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번역기를 통해 소통하며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해 지역 지리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아침, 저녁으로 차량 무료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학년별로 아이들은 함께 등교하며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주2회 지역 다문화 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수업료의 1/4가량 소정의 금액을 받고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대표는 '나눔'의 가치 역시 바쁘게 실천하고 있다.

###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

합성태권도장은 언제나 열려있는 곳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은 제공하기 위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도장에 방문해 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고 한다. 실제로, 수업 중간 쉬는 시간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도장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 대표는 "우리 동네와 이 골목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주 올 수 있게 만들고, 제가 이 지역 자율방범대 대장을 맡아서 주2회 방범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며 말했다. 3년 전부터 주변 주민들과 합을 모아 만들게 되었다며, 나눔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나누기



태권도장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요, 더욱 안전하고 열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

글 - 박진경



위해 아이들과 함께 공연 봉사를 다니기도 한다. 지역 경로잔치 등 태권도 공연 봉사를 진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모두 도장에서 지불하고 있다.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느끼고, 그 어린나이에 뿌듯함과 재미를 느낀다는 것이 참 보람차죠."라고 정 대표는 말한다. 오랜 기간 한 곳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다보니 제자들이 직장인이 되고,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가지고 올 때 가장 뿌듯하다는 정 대표. 제자들끼리의 계모임을 만드는 등 찾은 교류가 있어, 가끔은 피곤하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지역의 안전과 열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정 대표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만큼 다양성을 알리고, 나눔의 계기로 많은 친구들이 합성



# 동네커피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37번길 13 1층  
전화 055-335-3006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ongnaecoffee\\_gimhae](http://www.instagram.com/dongnaecoffee_gimhae)



## 우리 동네, 편안한 커피 한 잔

봉황동 거리를 걷다 보면 하얀 벽에 따뜻한 나무를 덧댄 외관의 가게가 있다. 궁서체로 인쇄된 '동네커피'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지역마다 있는 가맹점이지만 동네커피 부원점은 또 다른 매력으로 우리를 편안히 이끈다.

### 누구나 발걸음 할 수 있는 공간

“제 생각에는 저희 가게가 이 근처 카페 중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커피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가게를 또 오고싶다 생각하고 이 장소를



편안한 공간이라고 느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설화 대표의 동네커피 운영 이야기는 운명적이다. 우연히 시작한 커피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20대 젊은 청년이 동네커피와 인연이 닿자마자 2개월 만에 가게를 인수 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느낌보다는 차곡차곡 쌓인 실제 현장의 경험들이 빛을 보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임 대표는 가게를 인수 받고 첫 번째로 내부 인테리어부터 정리했다.

“여기 봉황동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르바이트 시절 카페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이미지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어요. 가맹점이라 내부 인테리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저는 외국인들이 와서 올곧이 한국 문화를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감히 일본과 관련된 소품들은 뺐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에 오래 있던 자개 장식장이나 한국적인 그림들, 소품들로 따로 채웠어요.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오롯이 이해하기



쉽고, 동네 어르신들도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임 대표는 지역의 동네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손님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 중이다.

### 마음으로 열려있는 나눔의 가치

봉황동은 세대가 섞여 있는 곳 같다고 임 대표는 말한다. 이곳 봉리단길은 예부터 어르신분들이 터를 잡고 살고 계신 동네에 젊은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며 만들어졌다. “길을 걷다 보면 한 편에는 엄청 오래된 집이 있고 바로 옆 공간은 세련되게 꾸며놓은 예쁜 가게가 많아요. 저는 여러 세대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섞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는 청년 사장님이지만 동네의 어우러짐까지 걱정하는 모습에서 세대를 넘어선 진지한 마음이 엿보인다.

임 대표는 한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며 전했다. “보통 카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커피 마시러 잘 못 들어와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들어와 봤어요.” 이 근방에는 어르신들이나 가족 단위가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분위기의 카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한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경제활동도 줄어들시니까 낮에는 가실 곳이 없으시잖아요. 동네 공원에 모여서 커피 나눠 드시고, 추우신데 밖에서 그렇게 모여 계신 모습을 보면 저희 공간 근처면 오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치가게의 다섯 가지 중에 나눔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만큼은 연령대나 성별에 상관없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는 아기를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 유모차 등으로 쉽게 가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입구로 경사로 설치를 계획 중이다.

“가치가게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치가게가 본인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가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좀 더 따뜻해지고 더불어 사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요.”

동네커피 부원점의 마감 시간은 오후 5시다. 주말에는 저녁까지 복직한 동네인데도 마감 시간이 꽤 나 이른 편이다. 임 대표는 저녁때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네 커피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다. ☺️

글 - 김수진





# 방하림 / 공방(도예)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49

전화 0507-1345-1521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banghalim1521/?utm\\_source=qr](https://www.instagram.com/banghalim1521/?utm_source=qr)



## 환경을 생각하며, 그릇을 빚어요

마당에 걸어놓은 빨래가 가을 햇볕에 잘 마르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는 밥 짓는 냄새 풍기고, 담 넘어 티브이 잡음이 들린다.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동네, 봉황동. 방하림은 봉황동 봉황대공원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내려놓은 방(放), 아래 하(下), 수풀 림(林). 편안한 숲처럼 일상의 근심 내려놓을 수 있는 도자기 공방이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가득한 방하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초록 잔디가 빼죽 솟은 마당을 지나면, 기와를 얹은 황톳빛 1층 집이 나타난다. 인근 봉황대공원에서 들리는 새 소리를 들으며, 방하림 문을 열었다. 방하림은 집과 풍경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김미옥 대표는 2021년 방하림 문을 열었다. 자연 속 집을 만들고 싶었던 김 대표는 황토 등을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지었다. 김 대표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가치가게를 참여하면 환경을 살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는 도자기 체험이 많은 편이에요. 만들어진 도자기를 가져갈 때 포장해 드리는데, 깨지는 걸 막기 위한 완충재를 비닐 대신 종이로 쓰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봉리단길이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늘면서, 방하림은 젊은 커플들 끼리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커플들이 한결같이 모두 하트접시를 만드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들은 모두 의젓한 모습으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다”며 웃었다.

### 함께 소통하는 공간

김 대표가 방하림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건 ‘사람과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다양한 연령대분들과 소통하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체험을 오시면 자유롭게 도자기를 만들도록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한결 같이 제게 ‘선생님, 여기만 한 공방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 해줘요’ 라고 말하세요.”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방하림은 다양한 연령대를 넘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김 대표는 “환경을 늘 생각하고 사람들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하림을 운영해가고자 했다.

김 대표는 가치가게에 참여한 모든 가게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꿈꿨다. 그는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2-3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것들을 정해서 함께 나눠보는

모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연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함께 모임, 나눔, 캠페인 등을 하면 좋겠어요. 가치가게로 인해 실현 가능한 것을 정해 조금씩 시도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김해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

글-윤성하





# 아이헤븐 / 동물장묘업

주소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대로928번길 10-5  
 전화 1577-5474 / 010-5773-2119  
 블로그 [blog.naver.com/iheaven1004](http://blog.naver.com/iheaven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heaven.official/](http://www.instagram.com/iheaven.official/)



## 소중한 아이들의 마지막 산책길을 함께합니다.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비탈길을 올라가다 보면 새하얀 외벽의 아이헤븐이 있다. 반려동물의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는 아이헤븐의 임채운 대표를 만났다.

###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한 첫 시작

아이헤븐은 김해시 최초의 정식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다. 여러 어려움 끝에 이곳에 자리를 잡은 정이찬 대표는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아이헤븐 건물을 공사할 당시 주변 시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불췌 입장을 찾아오는 경우도 으레 있었다고 말한다.



정 대표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특히나 경남 지방에는 반려동물의 화장 방법이나 장례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주변 주민분들에게 먼저 인사드리고 깨끗하게 입장을 운영하며 본보기를 보이자는 마음이었죠.”라고 말했다.

### 이별의 슬픔을 치유하다

아이헤븐은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김해시 생림면에 위치해 있다. 깔끔한 두 채의 건물로 장례의 엄숙함과 빼곡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이별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져있다. 실제로 정 대표는 기존의 동물 화장터와 달리 장례의 분위기와 공간 꾸리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았다. 반려동물 애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물 내의 조명과 색상에 큰 공을 들였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향을 조절하는 등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고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시간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단독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저희가 만들어진 이후로 다른 동물장묘업체에서도 공간에 집중하는 문화로 변화되어 정말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아이헤븐은,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 각종 박람회와 지역축제, 플라마켓에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높은 장벽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 업장 내에 보금자리와 깨끗한 물과 사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보호연대와 연계하여 길고양이 장례 시 장례비 할인 및 찬조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치기계를 통해 반려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 나눔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정 대표의 계획이다. “이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장례절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장례식은 비싼 것 같거나 부담스럽다, 혹은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 채로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맞닥뜨렸다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누구나 ‘아이헤븐’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장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장례식은 비싼 것 같거나 부담스럽다, 혹은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 채로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맞닥뜨렸다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누구나 ‘아이헤븐’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장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표는 펫로스 증후군(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몇 개월 전 예상치 못한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갑작스레 방문한 보호자 한 분이, 애도 중 발작을 일으켜 구급차를 부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펫로스 증후군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절차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여 교육 나눔을 더욱 많이 실천하겠다고 정 대표는 말했다. 아이헤븐은 기초수급자 등 상황이 어렵거나, 길고양이를 수습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는 기존의 할인 혜택 외에도 추가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며 ‘나눔’ 가치에 동참하고 있다. 대표는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존중받아야할 시간이라고 하며 “초조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희 업장을 방문하셨다가, 무사히 장례절차를 마치고 난 후 안정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보호자분들을 보면 뿌듯합니다. 별개로, 아이와의 마지막 시간을 잘 보냈다면 감사인사를 받을 때는 언제나 기쁘죠.”라고 말한다. 정 대표는 가치기계를 통해 아래와 같은 말을 전했다. “반드시 저희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 장례는 적절하게, 검증된 곳에서, 소통하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및 절차없이 급히 진행할 때, 문제가 생겨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고려했으면 좋겠고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은 언제든지 교육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방문해주세요.”

글 - 박진경





# 다호정육 / 정육점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9번길 15-1 (다호정육)  
 전화 1577-5474 / 010-5773-2119  
 블로그 [blog.naver.com/iheaven1004](http://blog.naver.com/iheaven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heaven.official/](http://www.instagram.com/iheaven.official/)



## 올바른 고기, 다시 나누는 마음

여느 동네와 같은 상가들이 늘어난 길에 돼지의 외형을 띤 간판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온다. 한자로 '다호정육(多好正肉)'이라 적혀 있다. 다호정육, 누구나 좋아하는 올바른 고기란 뜻이다. 다호정육의 신성민 대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며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한 고기를 판매한다.

###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나눔의 가치

다호정육은 김해 진영의 주거지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동네의 지역민들이 '육(肉) 고기'하면 찾는 가게다. 우연히 만난 진영에 거주하는 분에게 다호정육에 대해 물어보니 엄청 유명한 가게라며 반가워하신다. 그만큼 건강한 고기는 물론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정직한 가게다.



신 대표는 다호정육을 2018년도부터 이 자리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저희 가게가 받은 사랑만큼 지역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바빠져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손님들도 애용해 주시니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늘 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같이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더군요." 신 대표가 가치가게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이유다.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는 2018년 11월에 가게를 개업하고 다음 달인 12월부터 진영읍사무소에 물품 기부를 시작했다.

나눔에서 행복을 찾는 그는 조금씩 기부 물품의 양을 늘려갈 계획이다.

"저는 가게 운영에 있어서 항상 사람 중심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 지역에서 상생하는 주민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있는 매장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신 대표는 본인의 몸이 피곤한 만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의 원칙을 지키며 양질의 등급을 지키는 것은

###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

김해 진영하면 단감이 유명하다. 신대표는 지역과 상생할 할 수 있는 품목을 구상하다가 단감을 활용한 육가공품 개발을 떠올렸다. 시중에 나온 육가공품은 많지만, 지역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품목의 연구 개발 아이디어는 그의 지역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진영 단감을 활용한 육가공품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농민과 이윤을 배분하고, 지역과 상생하여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는 말한다.

신 대표가 일본에서 만난 멘치카츠(소고기로 만든 고로케)는 그가 조만간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다.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튀겨서 판매하여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저는 정육점에 대한 틀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도축장에서 고기를 가져와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저희 다호정육이 올바른 육류문화를 만들고 진영 지역의 시그니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좀 더 부흥하고 저 또한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신대표는 이전 직장을 다닐 때 회사가 주최한 대회에서 상과 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상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보육원에 기부하였다.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나눔을 좌우명으로 삼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걸어왔다. 그는 많은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

글 - 김수진







# 코워킹스페이스PLP / 공유공간

주소 경남 김해시 평전로 194, 2층

전화 055-723-2284

블로그 [www.instagram.com/spaceplp/](http://www.instagram.com/spaceplp/)



## Point, Line, Plane.

무수히 많은 점이 모이면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모이면 면이 만들어지며 다양한 도형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이어지고,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한 점점 넓어지며,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다채로워진다. 매번 새로이 세상이라는 도형을 그려내는 이 지현 대표를 만났다.

### 여러 가치가 하나로 녹아드는 특별한 곳

넓지 않은 오르막길, 줄지어 붙어있는 낮은 빌라건물들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코워킹플랫폼 PLP의 이름이 적힌 문이 보인다.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200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공유 사무실이지만, PLP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작업을 위해

언제든 쉽게 들을 수 있는 위치와는 거리가 멀다. 주택가에 덩그러니 위치한 이 곳을 본다면 누구나 이곳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항상 한 번 와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죠. 여기 보시면 배치된 소품이나 물건들 보면 다양하고 잡다하게 놓여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부조화스러운 것들이 마구 놓여있지만 연결되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의미함이라는 듯 이 대표가 설명한 PLP는, 쉽게 말해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며 이어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코워킹’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교류를 위한 장을 넘어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들, 무언가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나 해법을 함께 찾고 만들어 나가는 공간.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나누고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랑방 이상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지역의 각자 다른 취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 혹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을 돕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PLP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PLP를 중심으로 뜻이 맞는 개인 혹은 단체가 연결되는 네트워킹이 그들의 의문에 해답을 줄 수 있을거라고 이 대표는 말한다.

더욱이 특이한 점은, 이곳을 찾아오던 때 느낄 수 있었듯이 접근성을 중시하는 요즘의 공간들과 달리 찾아오기 불편한 곳이라는 점이다. “요새 가게들을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주차도 쉽고 이렇게 오시면 저희 가게가 잘 보여요, 하고 높은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PLP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필요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불편함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내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도 여기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복극성

이 대표는 이야기를 이어가다 떠오른 일이 있는지 짧은 감탄사를 뱉고 에피소드 한 가지를 꺼냈다.

“김해에서 발 붙이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찾아왔던 청년 플로리스트가 있었어요. 자기가 작은 공간도 가지고 있고, 여길 어떻게든 활용도 해보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트워크나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건지 같이 고민해보자면서 공간에 직접 가 보니까, 원데이클래스 겸 작품을 만드는 공방의 역할을 하는 스튜디오였어요. 제가 또 진행하던 하우스 콘서트가 있어서 같이 하면 그 친구도 공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도 콘서트에 대한 고정 관객도 있고 더 알려질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거죠.”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찾아온 청년이었으나, 뜻과 상황이 맞는 개인과 연결되며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사계(四季)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계가 성황리에 끝난 후 장유유서라는 다른 프로그램도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계획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환경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님과 협업하게 되었는데, 플로리스트 분도 페타이어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 방면에서 연결해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생각 중이라고. 이후 작가와의 만남과 해양 쓰레기를 이용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까지, 사람간의 연결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문화와 융합되고 이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까지 뿌리를 뻗어나간다.

“재밌는 게 찾아주시는 분들마다 본인이 하고싶은 걸 뽐내듯 가지고 오지는 못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여기에서 다 되네요?’ 하시는데.”

길을 찾아 헤메는 이들에게 PLP는 직접적인 길은 되어주지 않더라도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역할은 해줄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이 모여 북두칠성을 이루듯이, 점, 선, 면. 코로나 이후 심화된 사회의 단절에서 서로 이어져 있는 것,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오늘도 문을 열고 있다.

“가치기게라고 이름이 붙은 만큼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적으로든, 취미로든, 아니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거든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모임이나 공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가는 게 편리해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PLP를 그런 식으로 더 잘 이용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글/그림 - 신은경





# 허니피플 / 양봉

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8번길 19  
전화 0507-1379-0501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oneyppl0401



## 환경 지킴이, 꿀벌로 연결된 그들

김해 주촌의 구도심과 신도심이 나누어지는 경계에 꿀벌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있다. 저 멀리서도 꿀벌이 연상되는 노란색의 건물이 보인다. 가까이 가보니 '허니피플'이라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의 김미아 대표는 2021년 4월 취약계층 7명의 동료와 함께 허니피플을 만들었다.

### 자활 기업 허니피플

"저희 허니피플은 자활 기업으로 친환경 양봉 제품 개발, 양곡 배송 그리고 DIY 생활 소품 제작, 양봉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네트워크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김 대표는 동료들과 함께 2018년도부터 열심히 양봉도 하고 자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노력해왔다. 3년 만에 창업하게 되면서 단단히 다져온 연구와 노력의 성과들이 더 큰 결실들로 돌아왔다.

"현재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이전에 최저 생계비 기준의 급여만 받다가 현재는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허니피플로서 1년간 운영을 하며 직원 7명 중 4명이 경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차가 생긴 거죠."

김 대표는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자활 기업 사업가로서 아주 뿌듯한 부분이라며 미소 지었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자활을 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 말하는 김 대표의 눈이 지난 시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듯 반짝였다.

### 꿀벌, 환경의 가치를 알리다

김 대표는 자활 기업으로써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환경에도 관심이 많다. 그것이 그가 꿀벌을 선택한 이유다.

"현재 지구가 온난화로 환경이 위기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꿀벌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포름을 갔을 때 지금 지구에서 꿀벌이 많이 없어졌는데 꿀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해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꿀벌감소를 통한 지구 위기가 이슈다. 허니피플은 양봉이란 활동만으로 꿀을 따기 위한 기업이 아니다. 꿀벌을 통해 환경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허니피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큰 김 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저희가 꿀벌과 관련된 조형물이나 꿀벌 벽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알리는 운동을 넓혀나 가면서 환경을 지키는 매개체,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건 없습니다."

김 대표는 허니피플이 있는 공간 바로 앞 골목을 꿀벌 골목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이다. 주촌면 지역협의체와도 협력을 통해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자활 기업에게 성공 모델이 되길 바란다는 김 대표는 허니피플이 꿀벌을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글- 김수진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삭막한 공간 지역 또한 밝아질 예정이다.

"저희는 꿀을 많이 따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리 기업의 존재 가치가 동료들이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고 내 몸이 즐겁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허니피플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공시장이나 인터넷 플랫폼 등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런 경로들이 확보되어서 동료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김 대표는 말한다.

"자활 기업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허니피플을 보면서 힘을 조금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귀감이 되어 다른 어려운 자활 기업에게 좋은 시너지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고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사회를 나은 사회로



# 상록수학원 / 학원

주소 경남 김해시 삼계동 1444-6  
전화 0507-1366-1551  
블로그 <https://evergreenedu.modoo.at/>



## 열려있는 교실, 함께하는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각거리는 필기 소리가 교실을 채운다. 학생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문제집의 페이지가 넘어 가는 만큼, 화이트보드의 빈 공간이 채워져 가는 만큼 학생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돕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오래도록 그들의 뒤를 받쳐주는 선생님의 존재는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나무와도 같다.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열려있는 교실, 상록수학원의 김병훈 대표를 만났다.

###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예전에는 규모가 좀 컸는데 그때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하고 있는거예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생각했지 학생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바빴지 정작 아이들 생각을 잘 안 했죠.”



(애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자녀도 있으니까 아이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쪽 강사 일을 해오던 김 대표는 15년 전부터 김해에 자리를 잡았다. 그 중에서도 상록수학원의 푸르른 간판이 처음 삼계에 걸리게 된 것은 재작년 겨울.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을 특히나 강조하던 그의 학원에는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다. 학원을 찾는 학생들은 그들의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보통 학원에서는 학년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을 특정해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다른 학원과 수업 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종종 보았다고. “그런 게 예전에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수업을 못 할 수도 있고, 저희 때문에 다른 학원들이 수업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결국 한 쪽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거죠.” 하지만 보다 특별한 행보는 코로나 시절에 시작되었다. 죽어가는 학원 주변의 상권, 사정이 어려워지는 분들을 보며 김 대표 또한 코로나의 여파를 느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없을까 고민하던 그가 기획한 것이, 교육비의 지출이 버거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능기부의 형태의 무료 수업이었다. 그렇게 진행하던 수업을 현재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무료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보면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 같은 분들이 따로 정해져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국가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도적 어려움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거예요.”

### 함께 하기에 의미있는 교실

가치가게에 함께하게 된 것 또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큰 나눔을 위한 선택이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 평소에도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던 그의 눈에 들어온 가치가게 모집 공모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김 대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기회였다. “공교육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이지만, 학교만으로 교육이 잘 안 되면 사교육이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은 돈이 드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강의를 하는거고요. 가치를 찾자면 모든 학생들이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거죠.” 사실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무료로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홍보를 해도 상담을 받으러 오기에는 혹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거절당할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김 대표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알려져서 주저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일단 상담받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가치가게들이 함께 나누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교육을 그렇게 하고싶은 거예요. 힘에 부쳐서 학원 일을 못 하게 되기 전까지는

학원을 이제 옮기긴 싫거든요. 가능한 장기간 계속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요.”

상록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잎이 항상 푸른 나무를 말한다. 그 이름처럼 시간이 흘러도 학생들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가치는 누군가에게 분명 큰 도움이자 위로가 되리라 믿는다. 🌿

글 - 신은경







# 수릉원풍경 /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25번길 40  
전화 0507-1311-167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ureungwon\\_scenery/](http://www.instagram.com/sureungwon_scenery/)



## 커피 한 잔, 책 한 권, 나누는 한 마디의 편안한 공간

수릉원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안쪽 골목, 책과 커피, 사람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간이 있다. 멋드러진 캘리그래피로 쓰인 간판을 따라 한 발짝 들어서면 벽장에 자리잡은 책들이 반기고, 차와 커피향이 코끝을 맴돈다. 주민들이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이 곳을 더 밝고 화사하게 만든다. 사람이 그 환경의 분위기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곳, 봉황동의 수릉원 풍경을 찾았다.

### ‘함께가 편하고 따뜻한 사람방’

수릉원의 뒷편 길가로 들어서면, 공원을 바라보고 자리잡고 있는 카페 ‘수릉원 풍경’이 보인다. 2019년 8월 문을 연 이곳은 도서관으로 처음 시작했으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카페로 재탄생하였다. 그런 만큼 다양한 책을 보유하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아늑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선사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어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열린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빔 프로젝터와 보드까지 마련된 이 공간에서 주민들은 자유롭게 독서모임이나 세미나 등을 가질 수 있다. 좋은 취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임효신 대표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다양한 메뉴 중 직접 담근 레몬, 자몽, 생강 등의 차들 또한 풍경만의 자랑이다. “처음에는 납품을 받기도 했는데, 맛도 없고 설탕도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휘핑크림 같은 첨가물도 보기엔 좋아도 건강에는 안 좋으니까 사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아니든, 그런 부분은 지키자, 하는 마음이에요.” 수제 청에는 신선한 달콤함 뿐만 아니라 본인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은 손님들에게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임 대표의 이유 있는 고집이 녹아있다.

책들과 함께 카페 이곳저곳을 꾸미고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도서관이었던 시절 열었던 수업의 수강생들이 하나씩 선물해준 것들이다. 과거부터 이어진 인연들이 공간을 함께 꾸며가고 있는 셈. 카페 한 쪽에는 양말이나 가방, 브로치 같은 수공예품들이 놓여있다. 예술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전시하고 또 판매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작은 공간이라도 공유해서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 그 분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그는 말한다. 그렇게 수릉원풍경은 단순한 카페 이상으로,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복합 공간으로서 봉황동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에 재단 관계자에게 받은 가치에게 권유는 임 대표에게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김해시와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왔다. “사실 저희를 드러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간을 예쁘게 조성하면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김해시에 주변 환경 미화랑 조성에 대한 제안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뭐라도 사람들에게 더욱 편안한 환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저런 공리를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여기를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좋은 공간이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만들어야겠다 싶고요. 보시면 앞에



###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다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가게를 오픈한 직후 이후로 이어져오고 있다. 풍경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 편에 공원이 조성되었으나, 수릉원의 뒤편인 이곳은 그럼에도 인적이 드물고 쓰레기가 많은 삭막한 곳이었다고 말한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수릉원의 앞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전한 동네가 안타까웠던 임 대표는, 아무도 공간을 가꾸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공원이 처음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화단은 꽃을 심고 난 이후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죽어버리곤 했다. 그래서 종종 직접 물뿌리개로 물을 주거나 사비로 꽃을 심는 등 화단을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요 앞에 공원 정리해주는 미화원 분들은 항상 저희가 대접하려고 해요. 몇 명이 되었던지. 그래야 그 분들도 즐겁잖아요.” 터널 공간에도 전등이나 좋은 글귀, 그림 등을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편안한 환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저런 공리를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여기를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좋은 공간이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만들어야겠다 싶고요. 보시면 앞에

자연이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거든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거죠.” 공간을 꾸며가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이 모여 이루어진다. 어떤 공간이 생기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머무느냐에 따라 그 동네의 분위기 또한 달라지기 마련. 하루종일 동화책을 읽고 가는 어린이들, 장 보고 차 한잔 하러 들려주는 분들, 다른 지역에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것을 반중한다. 조용했던 지역이 활기를 띄게 되고,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어가는 걸 보는 것이 보람이라고 임 대표는 말한다. “그냥 편안하고 마음이 넉넉한 공간이면 좋겠어요. 쉴 수 있는 공간, 들르면 편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공간을 열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해요. 돈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 남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치는 절대 혼자 만들 수 없거든요.” 소박하지만 사람과 함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임 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가치기계를 오래도록 이어가게 만드는 이들이 아닐까 싶다. ☺ 글 - 신은경





# 청향 / 카페

주소 김해시 봉황동 392-30번지  
 전화 0507-1461-8936  
 블로그 [blog.naver.com/cafe\\_chunghyang](http://blog.naver.com/cafe_chunghyang)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afe\\_chunghyang/](http://www.instagram.com/cafe_chunghyang/)



## 맑고 향기로움을 간직한 공간

수로왕릉 돌담길과 김해한옥체험관 돌담길을 따라 길을 걷다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옛 한옥 대문의 카페가 있다. 세련되면서도 과거의 정겨운 모습을 담고 있어 잠시 과거의 회상을 잠길 수 있는 카페 청향의 주예슬 대표를 만났다.

### 맑고 향기롭게

카페 청향은 원래 북소리 찻집이었던 공간에서 '맑고 향기롭게'라고 쓰여진 액자를 보고 짓게 된 가게 이름이다. 맑고 향기롭다는 뜻의 '청향'은 가게의 특색인 수제청의 향기라는 뜻과도 잘 맞아 짓게 되었다.

조용한 분위기에 왕릉길 근처라 그런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찾아온다. 도서관 근처에 위치해 책읽으러 오시는 분부터, 아기엄마, 어른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의 취향에 맞는 카페이다. 청향에서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건강을 즐길 수 있게 모든 메뉴를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다. 국내 쌀과 조청, 유기농 설탕으로 너무 달지 않게 만든 오란다, 호두과자, 그리고 직접 만든 수제청이 특색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 먹는 것도 건강, 안심 먹거리로 만드는 데 많은 정성을 들이다 보니 김해 5대 가지 중 환경에 관심이 많이 가고 좀 더 발전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가게들을 문화와 엮어서 김해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가치가게가 김해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 작은 변화와 실천의 시작

이번에 친환경 빨대나 가게에 좀 더 환경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변화를 줬다. 환경 외에도 나눔의 가치에도 관심이 많은데 김해 방주원에 후원자로 등록되어 오란다 과자 등을 나누고 있다. 어린이날 방주원 행사가 있을 때도 기부를 진행하기도 했다. 카페 청향 김주영 대표는 "먹거리를 나누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나눔은 건 항상 돌아오기에 실천하고자 하는 편입니다."라고 말했다. 손님들이 맛에 감동이 되어 가족분들을 데리고 오실 때가 가장 보람이 된다. 김 대표는 "40-50대 분들이 오셔서 어머니이신 어르신분들을 다시 모시고 와서 청향을 소개할 때 그 마음이 감동이 된다"고 말했다. 청향은 수로왕릉 근처에 위치해 있다. 김 대표는 2019년에 부산에 플리마켓팀과 한옥체험과 안에서 콜라보를 했을 때 노을지는 수로왕릉에 반해서 "여기서 꼭 가게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202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예쁜 이곳은 산책로와 근처 도서관도 있어서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부가 매력적인 곳이다. 자연이 주는 힘이 크기에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고즈넉하면서

도 따뜻하고 편안한 매력적인 곳이다. 1층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신발 벗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대표는 "청향 시그니처 에이드, 찹쌀 호두과자와 오란다가 직접 만드는 대표 메뉴인데 많이 찾으시는 만큼 처음 맛과 변함없이 만들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카페 청향은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메뉴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찾아볼 예정이다. ☺

글 - 윤성하







# 가치크루 소감



가치크루 김하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실천하고 있는 멋진 사장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가치가게에 참여하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 작은 크루 활동이 김해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해시민으로써 김해에 더 애정이 생기는 시간이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보고 느끼고 즐겨서 행복했답니다.



가치크루 윤성하

가게 너머의 가치를 통해 김해를 충분히 느끼고 가치가게와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해의 5대 가치에 대해 처음 알게 되고 다양한 가게들을 방문하면서 이미 다양한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1, 2, 3차 가치가게 중 3차 가치가게에만 참여하게 되었지만 1차, 2차 때 기반을 닦아오신 가치가게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김해가 더욱 다채로워지고 따뜻하고 편안한 정이 많은 도시였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존과 환대를 실천하는 김해를 더욱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김해 시민으로서 가치가게를 널리 알리는 시민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크루 이승아

안녕하세요~ 가치크루 이승아입니다! 1,2차에 이어 3차 가치크루로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치가게가 아니었다면 미처 알지 못했을 멋진 가치들을 가진 가게들을 알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2차 가치가게들과의 네트워킹을 담당하게 되어 함께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었는데, 너무 따뜻한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가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치크루 한경동

가치가게와 함께 한지 어느덧 3년... 너무 즐거웠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게와 함께 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서로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치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가치가게. 앞으로의 방향에 항상 고민이 되지만 이 또한 같이 가치를 공유한다면 같은 가치를 같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치가게 파이팅!



가치크루 안정자

가치크루로 활동을 한 것은 저에게 행운이었고,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가치가게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 김해 시민을 위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가게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대표님들의 인생이야기와 가게의 역사를 통해 가게들의 숨겨진 가치를 알게 되어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가치크루들과 가치가게 대표님을 만나면서 김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가치크루로써 가치가게들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치크루 박진경

가치가게와 함께하는 지난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무심코 지나던 길거리 사이사이에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빛나는 가게들이 많다는 것을 저 또한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다른 가게들과 오래 함께 가치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가치크루 진예은

가치가게 덕분에 제가 광고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KNN 가치가게 홍보 광고) 이것저것 잘 먹고 다녀서 얼굴이 반지르르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부잣집 딸내미 같이 나와서 아무도 저인지 못 알아봤지만 그래도 첫 텔레비전 광고 데뷔랍니다. 2022년 가치가게는 가치가게 주인공들의 노력과 의지, 가치크루들의 열정, 그리고 담당자의 애정이 적절하게 버무려져 아주 맛깔난 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치가게를 잠깐 스쳐간 담당자임에도 결과자료집까지 챙겨주시는 경동선생님은 그저 빛★ 한번 가치가게는 영원한 가치가게!! 가치가게 FOREVER. ㄱ ㄷ ㄹ



가치크루 신은경

가치가게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김해의 역사와 다양한 인생이야기를 만납니다. 이분들과 만나면서 저 역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치 있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치가게 크루가 되겠습니다.



가치크루 김수진

올해 가치크루로 활동하면서 유쾌하고 보람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치가게와 가치가게 사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해 지역의 더 멋진 가게들이 발굴되고 참여할 희망합니다. 가치가게를 통해 같이와 가치의 깊은 뜻이 더 넓게 따스히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저희 운영진과 크루분들께도 진심으로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가치크루 김원진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싶은 가치크루 김원진입니다 3년 정도가 되니 김해 시민분들도 가치가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가게 사장님들도 김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해서 정말 감동적인 한해였어요. 올해는 자발적인 가치가게 신청과 가치가게 사장님들간의 공동 행사, 가치투어 같은 행사들이 정말 인상 깊고 재미있게 다가왔었는데요. ㅎㅎㅎ 앞으로도 더 많은 가치와 배려를 위해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치크루 김영현

올해 가치크루들이 가치가게 사장님을 만나는 순간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카메라 뒤에서 사장님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려고 질문도 이끌어내고 끄덕끄덕 눈빛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meraviglious했습니다. 한팀같은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가치가게 사장님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주변을 챙겨가며 조용히 묵묵하게 한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며, 지친 저에게 오히려 힘이 주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고, 이 귀한 인연이 오래도록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가게가 모여서 만드는 가치가게의 2023년이 궁금해 집니다.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적 실천 프로젝트 '가치가게'

## 2022 가치가게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연
발행처	김해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총괄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기획	한경동
운영	한경동, 진예은, 김원진, 이승아
문의	070-8824-3862
에디터	가치크루_신은경, 김하을, 안정자, 김수진, 윤성하, 박진경, 김영현
디자인	미디어피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김해시
주최/주관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 (주)비추다

\* 본 책의 저작권은 김해문화도시센터에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자료집은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